

金 呂 珠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獨谷 成石璘의 詩文學 研究

2005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吳 亨 靜

獨谷 成石璘의 詩文學 研究

金 呂 珠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5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吳 亨 靜

認 准 書

吳亨靜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獨谷 成石璘(1338-1423)은 高麗 忠肅王 復位 7年에서 朝鮮朝 世宗 5年까지 살았던 麗末鮮初의 政治家이자 文人이다. 이 시기는 정치·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대격변기로 한 왕조의 몰락과 더불어 새 왕조의 개창이 이루어지던 변화의 시기이면서도 舊文化와 新文化가 공존하였던 과도기였다. 당시는 새로운 이념인 朱子學이 통치이념으로 채택되면서 보편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이를 편승하여 文學的 분위기도 詞章보다는 經學을 중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文學도 載道論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삼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된 단계라고 할 수 없으며, 정치 외교적 詞章의 현실적 중요성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兩者가 공존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독곡은 적지 않은 정치적 갈등을 겪으면서 조선 왕조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의 삶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현실적인 정치를 실천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독곡의 學問的 性向은 朱子學의 큰 줄기를 좇으면서도 同時代 名儒들과 긴밀한 교류관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연한 자세로 다양한 學問을 받아들였으며, 특히 儒者的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儒佛이 추구하는 근본적 이치는 같다고 표명하여 佛敎의 敎理와 情緒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독곡의 폭넓은 學問과 儒佛에 대한 유연한 사고는 그의 詩意識에 영향을 주어 詩世界의 폭을 넓게 만들어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독곡의 詩世界 분석을 통해서 전형적인 官僚로서의 面貌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散在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官僚的 面貌, 日常的 情趣, 自然交感의 興趣, 그리고 脫俗世界에의 憧憬 등의 다양한

詩世界로, 그의 작품 세계를 총괄하여 그의 詩的 特徵을 고찰하였다.

독곡은 사회 정치적으로 왕조가 바뀌는 시기에 대부분을 사대부들과 함께 出處의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현실적인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官僚生活을 계속하면서 조선 초기 통치이념을 수립하고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큰 공을 세우는 등 官人으로서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官僚意識이 드러나 있는 詩作品들에는 주로 官吏들을 향한 아낌없는 忠言, 職分意識, 太平聖代에 대한 찬양과 자부심, 聖恩 등을 표현하여 官僚文人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독곡의 官僚的 面貌에서는 그의 현실지향 의식을 알 수 있었다면 官僚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생활을 통해 느끼는 사소하고 다양한 감정을 소재거리로 한 詩에서는 그의 渾厚한 詩風과 훈훈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 日常事에서 느끼는 情趣를 꾸밈없이 詩로 표현해내고 있는데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私的 감정을 詩 속에 스스럼없이 담아내기도 하여 정감 있는 詩人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다. 조선 초 朱子學的 思考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개인적인 감정절제를 통하여 자연현상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연계시켜 안으로는 心性을 도야하고 밖으로는 윤리질서를 확립코자 하였다. 儒家的 理想을 추구하고자 했던 독곡도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내재된 理致를 인간의 삶과 연계하여 나타내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연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물들의 섬세한 관찰을 통해 자연물의 표면적 아름다움, 특이함, 그 속에 내재된 교훈, 자신의 감정이입 등 다양하게 형상화하면서 기발한 시상 전개와 적절한 표현으로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은근히 담아내는 뛰어난 詩的 才能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는 오랜 관료생활에서 겪어야 했던 갈등을 佛敎와 道敎의 脫俗的 空間을 통해 해소하고자 했다. 道家的 性向의 詩에서는 隱者의 삶을 거침없이 표현하여 독곡의 豪宕한 詩的 특성과 醉樂風流的인 性向을 보였고, 佛敎的 性向의 詩에서는 주로 스님들과의 交遊를 통해 그들의 淸淨한 내면세계를 憧憬하고 있다. 비록 일시적인

希求에 머물렀지만 그의 자유로운 思惟는 詩想을 폭넓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독곡은 麗末鮮初가 儒敎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뛰어난 文翰과 능숙한 공무수행을 바탕으로 조선 초기 통치이념을 수립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그의 詩에서는 實踐的인 官僚의 면모를 형상화한 詩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개인적인 感情과 興趣를 표출하여 다양하고 개성 있는 詩世界를 지닌 정감 있는 詩도 많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詩的 風格이 渾厚, 雄壯豪放, 豪宕, 俊逸하다는 諸家들의 評은 독곡의 文學的 才能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독곡은 위로는 임금에 보좌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敎化하는 官僚文人으로서, 그의 詩에서는 당대의 보편적인 官僚文人의 전형적인 文學意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직은 性理學的 文學意識이 본격화되기 이전으로 유연하고 개방적 思惟體系를 바탕으로 다양한 詩世界를 이루고 있어서 純粹 詩人으로서의 뛰어난 위상을 지닌 麗末鮮初 대표적 문인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 그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독곡이 麗末鮮初의 전형적인 官僚로서 뿐만 아니라 풍부한 情緒를 지닌 純粹 詩人으로서의 위상을 조명한 것에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目 次

論 文 概 要

I. 序論	5
1. 研究 目的 斗 意義	5
2. 研究現況 斗 方法	7
II. 生涯 斗 時代的 背景	11
1. 生涯	11
2. 時代的 背景	17
III. 學問的 性向 斗 詩意識	22
IV. 詩世界	33
1. 作品概觀	33
2. 作品世界	36
1) 官僚的 面貌	36
2) 日常的 情趣	45
3) 自然交感의 興趣	52
4) 脫俗世界에의 憧憬	61
V. 文學史的 意義	73
VI. 結論	76

參 考 文 獻

ABSTRACT

I. 序 論

1. 研究 目的과 意義

獨谷 成石璘(충숙왕 복위 7:1338-세종 5:1423)은 麗末鮮初의 대격변기 때 고려왕조의 몰락과 조선왕조의 개창을 몸소 겪은 政治家이자 文人이다. 당시 신진사대부들은 朱子學的 이념으로 말기적 혼란을 개혁하려는 데는 뜻을 같이 하지만, 鄭夢周·吉再를 중심으로 한 온건개혁파는 고려 왕조의 절의를 택하고, 鄭道傳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는 신왕조 창건을 주장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왕조교체를 넘어선 국가 전반의 개혁일 뿐만 아니라 文學에 있어서도 詞章에서 經學을 중시하는 과도기를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곡은 적지 않은 정치적 갈등을 겪으면서 조선왕조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의 삶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현실적인 정치를 실천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독곡이 文科에 급제하던 해, 李齊賢은 그의 재능을 인정하여 3년간 국사 편수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恭愍王은 독곡의 뛰어난 文翰과 능숙한 공무 수행으로 그를 크게 신임하기도 하였다. 독곡은 고려왕조에서는 成均司成, 藝文館 提學, 寶文閣 大提學 등을 역임했으며,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藝文 春秋館 大學士를 맡아 국가의 文翰을 총괄하기도 하였다. 독곡은 초기 통치 이념을 수립한 공으로 太祖, 定宗, 太宗, 世宗 네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官人으로서의 본보기가 되었다. 또한 20여년을 고위관직에 재직하면서 銓選을 맡아 적재적소에 관리를 배치하여 민생의 안정과 教化에 힘썼으며, 여러 번 世宗의 世子傅로 임명되어 군왕으로서의 德을 쌓게 하여 훗날 聖王으로서 밑바탕이 되는데 큰 영향을 준 인물이기도 하다. 독곡이 죽자 世宗은 친

히 祭文을 지었으며 經筵官에 그의 遺稿를 편수케 하여 文集을 만들도록 명하였다.

독곡은 평소 詩文을 좋아하는 문학적 자질을 지녔으나, 애써 짓지 않았으며 일일이 기록도 하지 않았다. 또한 생애의 대부분을 經世에 뜻을 두어 文章은 餘事로 보아, 그의 역량에 비해 전해져오는 詩文이 적다. 그러나 『獨谷集』에 실린 작품들이 渾厚, 雄壯豪放, 豪宕, 俊逸한 風格 등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보아 詩人으로서의 문학적 재능을 잘 알 수 있다.

독곡의 學問은 朱子學적 이념이 팽배했던 당시 상황 하에서 삶의 대부분을 官職에 있었으므로 그의 작품세계 역시 전형적인 官僚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詩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구도 시대적 특수성에 중점을 두어 그의 官人으로서의 面貌를 살피는데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독곡의 詩世界 분석을 통해서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散在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官僚的 面貌를 비롯하여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그러나 그의 작품세계를 총괄하는데 있어 무시 못할 비중을 가지고 있는 日常的 情趣, 自然交感의 興趣, 그리고 脫俗世界에의 憧憬 등 다양한 시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독곡 詩의 한문학적 의의를 재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꾸준한 정치적인 공헌과 적지 않은 詩작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독곡의 삶과 詩文學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그의 다양한 詩世界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官僚文人의 전형적인 모습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되리라고 판단된다.

2. 研究現況과 方法

독곡은 麗末鮮初를 걸쳐 實踐的 政治家로서 뿐만 아니라 文人으로서 활동하였지만 어디에도 주목받지 못한 채 소외되어 왔다. 주로 이 시기의 연구는 몇몇 비중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왔으며, 독곡에 대한 연구현황은 미미할뿐더러 한문학사에서도 거의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단편적인 언급을 살펴보면, 조동일¹⁾은 徐居正의 문학사상을 논하기 위한 근거로 徐居正이 쓴 <獨谷集序>를 부분인용하고 있다. 여기서 徐居正은 河崙·趙浚·成石璘·李稷·權近을 거론하면서 勳臣의 문학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독곡을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병수²⁾는 鄭道傳 權近 成石璘 姜淮伯 朴宜重 李詹 鄭以畚 卞季良 등이 兩朝에 仕宦한 官僚들이어서 국초의 整地作業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하였지만, 반면에 역사적 성격을 흐리게 한 장본인들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였다.

독곡의 詩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李東泉의 「獨谷 送別詩 研究」³⁾이다. 이는 최초의 학위논문으로 한문학 상에서 연구되지 않은 독곡 詩의 연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送別을 주제로 한 시가 많은 것을 착안하여 送別詩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送別詩를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파악하려고 시도한 의의는 있지만, 독곡의 詩를 送別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詩世界와 문학적 특성을 알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丁海出의 獨谷 成石璘 漢詩의 研究⁴⁾에서는 독곡의 詩世界를 ‘現實에 대한 苦惱’, ‘愛民意識의 表出’, ‘別離의 抒情’, ‘歸去來에의 憧憬’, ‘自然物의 象徵性 表出’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麗末鮮初의 文學 중 處士文學에 편중된 그간의 연구 성향에서 탈피하여 官人文學에

1)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2002, pp.145-146

2) 민병수, 『한문학시사』, 태학사, 1996, p.218

3) 李東泉, 獨谷 送別詩 研究, 명지대 석사 학위논문, 1992

4) 丁海出, 獨谷 成石璘 漢詩의 研究, 고려대 석사 학위논문, 1995

해당하는 독곡 詩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丁海出은 독곡의 詩를 作爲의 흔적보다는 天性에서 發露된 것으로, 시상이나 제재가 풍부하며 조선조 사대부문학의 새로운 전망을 예고하는 先聲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문집의 書誌的 檢討와 시세계의 항목별 분류를 통한 분석과 감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시세계에서 항목별로 예를 든 시가 적절치 않았다. 특히 別離의 抒情에서 살펴보면, 6首중 4首는 유배시로 이별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리움의 감정이 짙은 시이다. 歸去來에의 憧憬에서도 佛敎에 관한 4首는 자신과 스님의 대비를 통한 스님의 淸淨한 세계를 憧憬한 것이지 歸去來의 憧憬이라고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다. 自然物의 象徵性 表出에서는 梅·蓮은 君子的 태도에, 松·竹의 선비적 기상에 초점을 맞추어 예를 들었지만 이 또한 적절치 않는 시가 보인다. 매화에 대해 읊은 시 중에서는 매화를 통해 독곡의 쓸쓸한 심회를 표출하고 있으며, 연꽃에 대해 읊은 시 중에서는 연꽃이 아니라 부채를 소재로 읊고 있다. 따라서 詩世界에서 인용된 작품들이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李慧淳의 成石璘研究⁵⁾에서는 作家論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전환기적 삶을 시를 통해 어떻게 표출했으며, 독곡의 시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녔는지를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곡을 비롯한 전환기에 삶을 산 인물들은 性理學的 명분이 의식 및 文學에도 투영되었을 것이고, 이들은 고려 文學의 전통 위에 조선조 官人文學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하였으나, 실제 다른 文人的 작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독곡의 詩의 특징을 ‘은후한 풍격’과 ‘현실적 기능 강화’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海東 江西詩派의 以俗爲雅의 자생적 전통을 확인하는 기반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독곡의 시에 대해 개괄한 것으로, 구체적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문학사적 위치를 정립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5) 李慧淳, 成石璘研究, 韓國漢詩作家研究 2, 태학사, 1996

崔允禎의 成石璘의 詩文學 研究 6)에서는 생애와 麗末鮮初의 문단, 전환기적 대응양상과 표현적 특징을 중심으로 詩를 고찰하였다. 전환기적 대응양상에서는 독곡의 詩를 왕조교체기를 기점으로 대별하여, 고려말기의 詩는 상징적, 함축적 詩語를 통해 당시의 모순된 상황을 형상화하여 미래의 낙관을 표현하였고, 조선창건기의 詩는 交遊詩를 통하여 신왕조의 치세염원과 강상의 확립, 자아와 자연 인식을 통한 개인적 감회를 표출하였다고 보고 있다. 표현적 특징에서는 ‘詩語의 확대와 관용적 표현’, ‘渾厚한 風格’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는 同시대의 文人들과 연계성을 지니면서도 표현이나 관점에 있어서 구별되며, 이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 官人文學으로서의 지향을 보여준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나 麗末鮮初라는 시기적 특성과 관인의 임무에 치중한 나머지, 시의 다양한 면모와 전반적인 성향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이혜순의 연구에서 더 이상 심화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官僚的 面貌를 비롯하여 선행연구에서 부각되지 못한 그의 다양한 정서가 배여 있는 詩世界를 살펴보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韓國文集叢刊』 6에 수록된 『獨谷集』을 주 텍스트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현실적인 儒者의 삶에 충실했던 그의 生涯와 麗末鮮初의 전반적인 時代的 背景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Ⅲ장에서는 독곡의 詩作品에 영향을 미친 그의 學問的 性向과 詩에 나타난 意識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Ⅳ장에서는 詩의 분석을 통해서 다양함을 추구했던 독곡의 詩世界를 살펴보기로 한다. 詩의 내용에 따라 1) 官僚的 面貌, 2) 日常的 情趣, 3) 自然 交感의 興趣, 4) 脫俗世界에의 憧憬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IV장에서 살펴본 독곡 시를 諸家의 評과 연계하여 고찰해

6) 崔允禎, 成石璘의 詩文學 研究, 이화여대 석사 학위논문, 1999

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사적 의의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곡의 의식과 개인적 정서가 표출된 다양한 시세계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官僚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정감 있는 詩人의 모습까지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II. 生涯와 時代的 背景

1. 生涯

成石璘(1338-1423)의 字는 自修, 諡號는 文景이며, 本貫은 昌寧이다. 부친은 昌寧府院君 文靖公 成汝完이고, 모친은 正順大夫 密直知申事 羅天富의 딸로, 이들 사이에서 4남 1녀 중 장자로 태어났다. 개성의 獨谷坊에서 태어났다하여 훗날 스스로 獨谷이라고 號하였다.

그의 가계를 살펴보면, 대대로 관직에 진출한 관인 집안임을 알 수 있다. 시조인 成仁輔는 中尹戶長을, 고조인 成松國은 門下侍中을, 증조인 成公弼는 奉翊大夫 版圖判書를, 조부 成君美⁷⁾는 奉常大夫 版圖摠郎을 지냈다.

부친인 成汝完은 충숙왕 5년(1336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藝文春秋檢閱을 거쳐 軍簿正郎을 지냈다. 이어 尙書 右丞, 知刑部事, 御史中丞, 典法判事를 거쳤으며, 그 중간에 海州와 忠州의 목사를 역임하였고, 僉書密直 政堂文學 등의 직에 승진되었다. 조선 개국 초에 耆老로서 檢校門下侍中에 임명되어 昌城府院君으로 책봉되었으나 출사하지 않고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를 지켰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조선왕조의 출사를 막지 않았다. 汝完은 그 성품이 간결하여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아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법도를 따랐다한다. 汝完의 네 아들 중 三谷으로 불리는 獨谷 成石璘, 櫓谷 成石瑢, 桑谷 成石珣은 과거에 급제해 중앙 관직에 올라 이름을 떨쳤으며 成璠은 고려조에 郎將을 지냈다고 하나 행적이 자세하지 않다.

石瑢은 우왕 2년 때 문과에 급제한 후 密直副使 提學을 역임했다. 공양왕

7) 成倪, 『虛白堂文集』, “吾昌寧成氏本大族 自摠郎而後 達官鉅卿聯阜蕃者 不知幾人”의 기록으로 보아 昌寧成氏의 성세는 총량공 君美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인물조;고려)에 기록된 사람은 汝完 뿐이므로 실질적인 성세를 보인 때는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말기에 독곡과 같이 李穡, 禹玄寶의 일파로 몰려 귀양을 갔으나 그 후 조선 태조 때 願從功臣이 되어 開城留守를 지냈으며 都評理司事 京畿觀察使를 역임한 뒤 寶文閣 大提學에 이르렀으며, 成三問, 成聃壽은 석용의 증손이다.

石珣은 우왕 3년 때 문과에 급제한 후 持評, 經筵 講讀官을 역임하였다. 조선 개국 후에는 大司憲·禮曹判書·大提學을 거쳐 江原道觀察使·忠淸道觀察使·藝文館 學士 등을 지낸 후 1406년(태종 6) 右軍摠制로 柳寬과 함께 사신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大司憲·右政丞·刑曹와 戶曹의 判書·大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형제 중 석인의 후손에서 주로 현달한 인물이 나왔는데, 成侃, 成渾 등이다.

독곡의 생애에서 그의 유년시절에 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으나, 다음 일화에서 辛旽은 그가 장차 크게 등용될 인물임을 예지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4-5명의 동료들과 정방에 있었는데, 요승 신돈이 뒷짐을 끼고 옆에서 보다가 문경공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끝내 크게 현달할 것이니, 그의 복덕은 제군들이 미칠 바가 아니다’ 하였는데, 그 후 과연 그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노적도 안목을 갖고 있었다.⁸⁾

유년시절부터 남달리 비범했던 독곡은, 공민왕 4년(1355) 18세의 나이로 司馬試에 3등으로 합격하였고, 20세 봄에 政堂文學 安原崇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그해 여름 李仁復⁹⁾이 시관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된다. 가을 國子直學을 거쳐 그 후 翰林檢閱이 되었다. 이때 益齋 李齊賢이 『東國史』를 편수하였는데, 독곡에게 史筆을 맡겨 3년간 史官에 종사하게 되었다.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그의 좋은 문벌과 뛰어난 글을 인정받은 계기가 되었

8) 徐居正, 『筆苑雜記』, “早年與四五同僚在政房 辛旽負手傍觀 指文景曰 終必大顯福德 非諸君所及 卒如其言 老賊亦復具眼”

9) 京山府 사람이고, 星山君 李兆年의 손자로서 호는 樵隱이다. 성품이 正大하고 근후하며 예로써 몸을 닦고, 宋學의 대두인 白頤正에게 배워 學問에 힘쓰며 글을 잘 지어 특히 朱子學에 밝았다.

다.

26세 여름에 典儀主簿가 되었는데, 공민왕은 독곡의 才氣를 깊이 인정하여 書札에 대한 임무를 전담시켰다. 이어 考功 禮儀 軍簿 典理 등 여러 관사의 佐郎과 軍器監丞을 거쳐 28세 가을에 典校副令과 寶文閣 直提學이 되었다.

31세 겨울 당시 정권을 잡은 辛旽이 공민왕의 예우를 받던 獨谷을 시기하여 모해하려하자, 공민왕은 독곡을 海州牧使에 임명하여 화를 모면케 하고, 지방관으로 부임된 지 3개월 만에 소환하여 成均司成 藝文館 直提學 知製敎와 左代言 知申事에 명하였다.

우왕 4년(1378년) 41세, 4월 輪誠佐命功臣이 되고, 密直副使에 제수되었다. 이때 助戰帥가 되어 송도 근교에 침입한 왜를 패주시키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가을 楊伯淵의 옥사에 연루되는데, 당시 都統使인 崔瑩은 이 사건을 계기로 독곡에게 극형을 적용하려하자 司平府 評事인 唐誠이 사실대로 논죄하여 큰 화를 면하게 되었다. 다음 시는 唐誠에 대한 挽詩로, 그때의 고마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學兼文史兩精強	學問과 문리 둘 다 정밀하고 강건하니,
有益東方孰可方	동방의 유익 뉘와 나란히 할 수 있을까?
都統律文先後語	도통보다 먼저 법전대로 말한 일은,
一生難報死難忘	평생 갚기 어렵고 죽어도 잊기 어렵네. ¹⁰⁾

독곡은 이 일로 곤장 칠백 대를 맞고 威安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음 해 여름 소환되어 同知密直司가 되었다

46세가 되던 해 6월은 왜구의 약탈이 극에 달하였는데, 우왕은 政事를 돌

10) 『獨谷集』 <哭唐府尹誠 451>

보지 않고 사냥과 유희에 빠져 있었다. 보다 못한 독곡이 왕의 비행을 극간하자 취한 우왕이 활로 쏘아 죽이려 하였으나 다행히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다. 이 일로 미루어 볼 때, 독곡은 正道로써 왕에게 서슴없이 직언하는 강직한 성품을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政堂文學을 거쳐 51세 여름에는 楊廣道 觀察黜陟使가 되어 당시 백성들의 피폐한 생활상을 직접 보고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道内の 백성들이 水旱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여 종곡과 양식이 모두 꺾절하였사오니 금후로는 청컨대 州郡에 義倉¹¹⁾을 설치토록 하소서.”¹²⁾라고 하니 이를 따라 義倉이 다시 시행되었다. 여기에서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구제하려는 독곡의 愛民意識이 잘 나타나 있다.

창왕 1년(1389) 52세, 12월 李成桂, 沈德符, 池勇奇, 鄭夢周, 偈長壽, 成石璘, 趙浚, 朴威, 鄭道傳 등과 興國寺에 모여 왕위 자리를 의논함에 독곡이 말하길 “임금은 마땅히 어진 이를 가려야 될 것이고, 그 족속의 친근과 소원은 논할 필요가 없다”¹³⁾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정치의 성패는 親疎를 따지지 않고 人才를 등용하려는 통치자의 노력에 달렸으며¹⁴⁾, 그에 따라 국가와 백성의 안정이 결정된다는 儒家의 이념에 입각한 독곡의 政治觀을 알 수 있다. 이어 공양왕이 옹립되었고, 독곡은 端誠保節贊化功臣이 되어 기울어진 국가 기강을 다시 잡으려고 했지만 피폐된 정치와 경제, 흉흉해진 민심으로 고려의 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새 왕조의 창건이 불가피해진 시점에서 7월 태조가 등극(1392년)하자 공양왕과의 사돈 간이란 이유로 동생 석영과 함께 두 번째 유배를 가게 된다.¹⁵⁾ 그 뒤 독곡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새 왕조 창건에 동참하게 된다.¹⁶⁾

11) 義倉은 고려 건국초기 成宗 五年에 설치한 재해대비책으로서, 그 후 四百年間 국정이 헤이해져서 시행되지 못하던 것을 독곡이 부활시킨 것이다.

12) 『高麗史節要』 34卷, <禰王14年8月條>, “道內之民因水旱不得耕耨種食俱乏今後請於州郡置義倉從之”

13) 『高麗史節要』 34卷, <恭讓王六冬條>, “君當擇賢不必論其族屬親疏”

14) 『中庸』 二十, “故爲政在人 取人以身 修身以道 修道以仁”

15) 문헌에는 禹玄寶, 李穡의 일당으로 몰려 귀양 간 것으로 기록되어있으나 직접적인 이유는 독곡의 사돈 왕우가 공양왕의 동생이니 사돈 간이라는 이유가 컸을 것이다.

56세, 2월 三司右僕射로 있으면서 한양천도문제로 계룡산에 다녀오는데, 이는 태조가 독곡의 경륜을 인정하여 국가재정 및 천도재정의 임무를 준 것이다. 또한 58세 6월에 태조는 초대 漢城府使로 독곡을 임명하게 되는데, 태조가 독곡을 세운 이유는 국초 국가운영과 민심수습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했을 것이며, 그로 인해 국가와 백성안위를 위해 많은 공적을 쌓은 독곡이 합당했을 것이다.

60세 1월에는 부친상을 당하는데, 태조는 상복을 벗게 하고 국사를 보게 하였으니¹⁷⁾ 독곡이 조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종 2년(1400년) 63세, 3월 左政丞이 되었으나 노모의 병환으로 인해 사직을 청해 昌寧府院君으로 봉해졌다. 그러나 그해 가을에 모친상을 당하게 된다. 服中에 제2차 王子의 亂(朴苞의 亂)이 일어나는데, 독곡은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도를 택했다.

태종 원년(1401년) 64세, 무력으로 왕위를 빼앗은 태종은 민심수습과 정권유지를 위해 독곡을 佐命三等功臣에 녹권¹⁸⁾하였다. 형제를 죽여 왕위에 오른 태종에 대한 분노로 인해 태조는 함흥에 칩거하게 되고, 태종은 태조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계속 사신을 보내지만 돌아오는 이가 없었다. 이때 태종은 태조의 회가를 위해 친분이 있던 독곡에게 명을 내린다. “태상왕께서는 본래 경을 중하게 여기시니, 경의 말은 반드시 따르실 것이다. 바라건대 문안드린 뒤에 은근한 말로 잘 아뢰어서 회가하시게 하라”¹⁹⁾하니 상복을 벗고 태조와 태종의 화해를 위해 함흥에 갔지만 命을 이행하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된다. 이 일로 인해 독곡은 태조와 태종 사이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심했으리라 짐작된다.

16) 독곡의 詩 <期後會 431>에서 선비는 부득이 한 경우에 독선지기를 하는 것이니, 그 외에는 세상에 나와 재능을 펴 함께 太平聖代를 누려야 한다고 읊고 있다.

17) 『태조실록』 12卷, <6년 11월 19일조>

18) 『태종실록』 1卷, <원년 1월13일조> 에는 朴苞의 亂난을 제압한 공으로 네 등급의 좌명공신을 기록하고, 교서를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19) 『태종실록』 1卷, <원년 4월17일조>

65세 11월에는 輸忠同德翊載功臣의 녹권을 받았으며, 66세의 나이에 謝恩使로 중국에 가서 태조 5년에 사신으로 갔다 억류된 鄭摠, 金若恒, 曹庶, 郭海龍, 盧仁度 등을 돌아오게 하는 등 외교적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70세에는 時務 20條를 올려 실시토록 청하였으니 여기에는 국방·외교·관계·재정·행정·민생 등에 관한 근본시책과 중요성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독곡은 관직에 있는 동안 여러 번 辭職을 요청했지만 왕은 번번이 윤택하지 않았고²⁰⁾ 오히려 독곡이 쌓은 오랜 연륜과 훌륭한 인격으로 그에 대한 예우가 특별했으며²¹⁾ 75세 8월에 그는 領議政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또한 세종에게 있어 독곡은 군왕의 德을 쌓게 해 준 스승²²⁾이기도 하였다.

세종 원년(1419년) 82세, 아들 發道가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상왕태종은 독곡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독곡을 위로하였다. 다음은 둘째 아들 發道の 죽음을 읊은 시이다.

脩短終歸盡	길던 짧던 끝내는 다하고 마는 것을,
誰爲不壞身	누군들 몸 허물어지지 않겠는가?
酒翁罪莫大	네 아버 죄가 막대하여,
家祭付何人	집 제사 누구에게 맡기나? ²³⁾

독곡은 네 형제 중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그의 자식 대에 와서는 크게 벼슬을 하지 못하였다. 독곡의 후사를 살펴보면, 2남 2녀를 두었는

20) 『정종실록』 <원년 4월 5일조>, <2년 9월 8일조>
 『태종실록』 <3년 12월1일조>, <4년 3월 11일조>, <10년 6월 25일조>, <11년 7월 19일조> <12년 7월 15일조> 등에서 끊임없이 사직을 요청한 사실을 볼 수 있다.
 21) 『동문선』 30卷, <不允批答>, “... 경은 세상을 경륜할 만한 뛰어난 재질이 있고, 나라를 다스릴 만한 글과 도덕이 있으며, 學問은 천인의 진리를 꿰뚫었고, 지식은 고금의 의리를 통달하였고. 경륜의 도에 합하여 일찍이 삼사에 올랐으며 보필의 공이 많아 실로 정승의 자리에 부합 하였소...”
 22) 『태종실록』 <5년 7월 3일조>, <6년 9월 16일조>, <8년 2월 11일조> 등에서 여러 번 세자부로 임명되었음을 볼 수 있다.
 23) <哭子三宰 244> 여기서 三宰는 의정부의 參贊을 뜻한다.

데, 장남 志道는 檢戶曹參議를 지냈고, 차남 發道는 正憲大夫 議政府 參贊을 지냈으며 諡號는 景肅公이다. 장녀는 강릉부사 趙休에게, 차녀는 定康君 王坦에게 시집갔다. 장남 志道의 아들 구수는 맹인으로 후사를 잇지 못하였고²⁴⁾, 둘째 發道는 아들이 없이 죽었으며, 사위인 王坦은 王室祀孫이라 죽임을 당하였다.

發道가 죽은 다음해 83세에 독곡은 모든 공직에서 致仕하였고, 84세에는 几杖을 하사받자 독곡은 임금에게 감사의 箋을 손수 지어 올렸다. 그러나 그해 겨울 몸이 극도로 쇠해지니 임금은 의원을 보내어 독곡의 병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함을 한하였다.²⁵⁾

독곡은 여느 때처럼 양화라고 부르는 나무안석에 기대 앉아 휴식을 취하다가 세종 5년(1423) 1월, 86세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세종은 이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조회를 폐하였고 친히 祭文을 지었으며 諡號를 文景으로 내렸다. ‘道德이 널리 알려진 것을 文이라 하고, 義理에 따라 행하여 이루어진 것을 景이라 한다.’²⁶⁾에서 독곡의 學德과 仁政을 새삼 알 수 있게 한다.

2. 時代的 背景

독곡이 활동했던 麗末鮮初는 대외적으로는 元·明의 교체기를 겪고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조선 왕조의 창건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혁이 있었던 시기였다.

고려는 12세기 중엽부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여 무신

24) 『세종실록』 80卷, <20년 13월 27일조>. 훗날 구수가 아들을 낳자 세종은 후사를 잇기 위해 특별히 제수케 하였고, 할아버지(독곡)의 과전을 대대로 받게 하였다.

25) 『세종실록』 12卷, <3년 7월20일조>.

26) 『세종실록』 19卷, <5년 정월 11일조>, “諡文景 道德博聞文 由義而濟景”

집권시대와 몽고간섭시기를 거치면서 집권체제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되어 14세기에 이르면 고려 왕조의 초기 체제는 거의 붕괴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모순이 격화되어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²⁷⁾ 국외 상황은 왜구 및 홍건적의 침입, 元의 쇠퇴와 아울러 明의 등장으로 인해 정치 외교관계에 커다란 변동을 겪게 되며, 국내에서는 권문세족의 횡포로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나고, 고려조를 지배해 왔던 비기도참설, 풍수지리설, 구복화된 불교는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데, 특히 佛敎는 왕실과 권문세족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전횡을 일삼아 더 이상 고려사회와 왕실의 정신적 이념이 될 수 없었다. 이런 혼란한 정세를 바로 잡기위해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은 13세기 말 元을 통해서 유입된 朱子學을 바탕으로 學問的 소양과 행정실무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공민왕은 元·明의 교체기를 이용해 反元政策을 내세우고,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 개혁의 의지가 강한 신진사대부들을 대거 등용하여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지만 元과 결탁하여 이미 중앙정부에서 막강한 세력을 보유한 권문세족의 반발로 그의 정책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學問的 소양은 갖췄지만 군사력이 없던 신진사대부들은 그들의 정치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李成桂와 손을 잡게 되고 威化島回軍(1388)의 성공을 계기로 李成桂는 軍權과 政權을 장악하게 된다. 이후 신진사대부들 간에도 왕조의 존립을 두고 고려왕조의 체제 안에서의 개혁을 추진하려는 鄭夢周, 吉再 등을 중심으로 한 온건개혁파와 새 왕조를 창업을 추진하려는 鄭道傳, 趙浚 등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로 나뉘게 된다. 온건파는 급진파와 이념적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鄭夢周, 李崇仁 등이 숙청되고, 나머지 온건파들은 유배를 가거나 권력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하게 된 李成桂는 고갈된 국가재정 확보와 경제를 회복을 위해 급진파들과 새로운 토지제도인 科田法을 시행하여 권문세족의 경제기반까지 확보함으로써 朝鮮을 개창(1392)하기에 이른다. 조선조는 여말부터 지향해

27) 韓永愚, 『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 乙酉文化史, 1983. p.12

은 朱子學을 이념으로 내세워 崇儒抑佛을 표방하지만 삼국시대 이래로 왕실과 백성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내려온 불교는 내면적, 종교적인 면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儒·佛의 二元的 사유체계를 보이고 있다.

조선왕조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고려조의 舊臣들을 대거 진출시키는데 즉 국초의 어수선한 분위기 수습, 백성의 안정 도모, 새 왕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의도였다. 또한 태조와 개국공신들은 대내외적인 국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國號改定, 國都의 新都, 각종 政治制度, 法典制度, 儀禮制度整備 등 여러 시책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통치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官僚중심에서 王權중심으로 정치 개혁을 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정치세력 다툼이 생겨난다. 제1차 王子의 亂(1398)으로 鄭道傳이 제거되고, 제2차 王子의 亂(1400)으로 李芳遠은 반대세력을 제거하여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다지면서 왕위에 즉위한다. 太宗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官僚체제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다져 놓음으로써 世宗대에 이르러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문학 역시 고려 말에 유입된 朱子學의 영향으로 文以載道 文學觀을 형성하게 된다. 먼저 朱子學이 유입하기 이전 고려 초 문풍을 살펴보면, 신라말기의 晚唐詩風과 四六駢儷文을 그대로 계승하여 내용보다는 지나친 수식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또한 光宗 때 과거제가 실시(958년)되면서 선비들은 宦路에 나가기 위해서 科擧에 필요한 詩文만을 일삼아 더욱 수사적인 기교와 형식의 표현을 중시한 詞章위주의 문학으로 흐르게 되었다. 고려 중기 때 일부 유학이념을 중시하는 文人층에서 문풍을 개혁하고자 하는 기운이 서서히 일어났지만, 당시의 문단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이후의 문학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武臣亂(1170) 이후에는 文人들의 문학 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고, 1231년 몽고의 침입 이후 자주권이 상실됨과 동시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전반이 흔들리자 새로운 이념에 의한 개혁과 민족적 정통성 및

도덕의 재정립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때 주자학이 安珦, 白頤正, 權溥 등에 의해 고려에 유입되는데, 주도 계층은 무신 정권 이후 과거를 통해 중앙 정계로 진출한 신진사대부들이다. 李齊賢, 李穀, 李穡, 鄭夢周, 李崇仁, 鄭道傳, 權近, 吉再 등에 의해 수용의 단계²⁸⁾로 접어들면서 문학이론에 있어서도 道文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文人들의 經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詞章보다는 經學을 위주로 하는 載道的 문학이 형성되었다.²⁹⁾ 道는 本, 文은 末로써 문학에는 바른 道를 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옛 聖賢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儒教 經傳을 익혀 바른 道를 구현하면 文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李齊賢(1287-1367)은 詞章에 힘쓰는 사람을 雕蟲篆刻之徒라 하고, 經傳에 바탕을 둔 사람을 經明行修之士라 하여 구분 짓고 있는데, 이 둘을 대립적 관계로 본 것이라기보다는 詞章에 치우쳐 내용이 없고 지나친 수식과 기교에 힘쓰는 문학을 경계한 것으로 道와 文의 적절한 조화를 주장한 것이다. 李穀은 ‘文道之氣’³⁰⁾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였고, 李穡은 ‘문장은 밖으로 발현된 것으로 마음에 근본을 두고 있다.’³¹⁾라 했으며, 李崇仁 (1349-1392)도 또한 道에 바탕을 둔 문학관을 전개해 나갔다.

조선초에는 鄭道傳, 權近, 李詹, 卞季良, 鄭以吾, 柳方善, 朴宜中, 趙須, 趙云佐, 成石璘, 姜淮伯 등이 활동했으며 그 중 대표적인 文人인 鄭道傳은 文以載道 文學論을 내세워서 점점 일반적인 문학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지만 太宗대에 文衡을 잡은 權近은 鄭道傳의 文以載道 文學觀을 계승하면서도 정치 외교와 새 왕조의 찬미 있어서 詞章의 중요성 인식하여 經學과 詞章이 공존하는 성향을 띄게 된다. 또한 나라의 정세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官僚층에서는 현 정권을 유지하려는 보수적 성향으로 詞章을 선호하기에 이른

28) 丁大丸, 『조선조 성리학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2. pp.121-122참조

29) 조중업, 『한국사화연구』, 어문연구총서 제3집, 태학사, 1991, p.176참조

30) 李穀, 『稼亭集』 卷14, <順菴新置大藏 李克禮州判作詩以讚 次其韻>, “載道之器皆謂經 釋氏所說誠難思”

31) 李穡, 『牧隱文藁』 卷8, <栗亭先生逸藁序>, “文章外也 然根於心”

다. 權近 이후 卞季良, 權堤, 鄭麟趾, 申叔舟, 徐居正, 成倪 등이 文衡의 자리에 있으면서 文風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들 역시 詞章을 옹호하여 館閣文人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사장과의 이러한 경향은 成宗대에 士林派의 중앙정계 진출로 인해 이론적인 대립을 겪게 되었고, 中宗대에 와서는 정치적인 대립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독곡이 官僚生活을 했던 시기는 고려 말 보급된 朱子學이 조선 건국 후 정치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쳤고, 文學에서도 文은 道를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文以載道 문학관을 기본적으로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 외교와 새 왕조의 찬미 있어서 詞章의 중요성 인식하여 經學과 詞章이 공존하는 성향을 띠게 된다. 국가 정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官僚層의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詞章을 선호하게 되며 士林派문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詞章위주의 館閣文學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Ⅲ. 學問的 性向과 詩意識

독곡의 學問에 대한 기록과 문학에 대한 이론이 남아 있지 않아 그의 문학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시 문학 전반의 흐름과 타인이 쓴 詩와 序跋, 그리고 그의 詩 등을 살펴 추측해 보기로 한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여말에 유입된 朱子學이 조선조에 와서는 통치이념으로 채택되면서 문학에서도 文以載道가 보편적 문학관으로 계승, 전개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 외교적 목적을 위해 詞章의 實用的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독곡의 學問과 文學도 당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의 學問은 일정한 스승에게 사사 받은 기록이 없으므로 관직에 오르기 전까지는 부친 汝完의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받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독곡이 과거에 등제했을 때 座主³²⁾는 李仁復으로, 그는 李兆年의 손자였으며 성리학의 대두인 白頤正에게 사숙하였고, 學問과 글에 뛰어났으며 특히 朱子學에 밝았다. 다음 시는 독곡이 李穡에 대해 읊은 시로 李穡은 李齊賢, 李仁復, 李穀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

妙齡馳譽動京城	묘령에 명예 떨쳐 경성까지 진동하니,
已冠三千太學生	이미 삼천 태학생 중에 가장 뛰어났네.
華夏文章誰並美	중국 문장가 중 그 누구와 아름다움을 나란히 하리?
暮年心跡益雙清	만년에는 마음과 자취 짝 이뤄 더욱 맑다오.
精眞內積德彌邵	안으로 정진 쌓으니 덕은 더욱 높아지고,
憂患外來心自平	밖에서 우환이 와도 마음은 변함없이 평온하네.
霽月光風無復繼	제월광풍의 맑은 인품 다시 계승할 이 없으니,
太山北斗獨垂名	태산북두처럼 홀로 이름 드리웠네. ³³⁾

32) 金承龍, 座主·門生을 통한 高麗後期 漢詩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1, pp.26-27 참조
좌주 문생은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의 인간관계가 결합된 것인데, 조선 태조에 의해 공식적으로 혁파 될 때까지 고려 유자들의 의식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穡은 고려 말의 名儒로 사상, 정치, 문학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에게 배출된 인재들이 조선 초 유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0세의 나이로 元나라에 가서 직접 문물을 접하였고, 國子監의 생원이 되어 朱子學을 공부하여 그의 學問은 날로 심원해져 갔으니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 귀국 후 40여년을 文翰을 맡아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하였으며, 成均館 大司成을 맡아 學問의 발전에 힘썼으니, 그 당시 李穡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朱子學을 습득하여 여말의 혼란한 국정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좌절되고, 그 뒤 물러나 前朝에 대한 절의를 지키며 隱居生活을 하게 된다. 독곡이 李穡의 學問에 영향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이 당시는 座主와 座主, 座主와 門生, 門生과 門生이 학연이나 혈연관계를 통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독곡은 벼슬길에 오르자마자 李齊賢과의 인연을 맺게 되는데 ‘몇 번이나 학사의 마루에 올랐던가, 삼년간 樸翁의 집에서 붓을 잡았노라’³⁴⁾의 詩句에서 독곡은 學問을 배우기 위해 이제현의 집을 드나들었으며, 李齊賢이 『東國史』를 편찬할 때 독곡에게 3년간 史筆을 맡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독곡은 문장과 필법을 크게 인정받게 되었으며, 李齊賢이 죽은 뒤에는 그의 손자와도 從遊하여 친분을 유지하였다. 그 밖에도 많은 名儒³⁵⁾들과 交遊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독곡의 學問은 이들과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陽村 權近이 독곡에 대해 읊은 시구에서 독곡의 學問과 인품을 알 수 있다. ‘일찍이 여러 성서를 다 궁구하였고, 마음은 이미 옥처럼 맑다네’³⁶⁾에서 독곡은 당시 朱子學의 영향아래 儒敎의 기본 경전인 四書와 五經을 궁

33) <牧隱先生暮年 東遊作詩 贈高城守李陟 浩亭和作二首 余亦依韻賦二首 169>

34) <次韻送定山李注簿 153> “幾度升堂學士宅 三年秉筆樸翁家”

35) 그의 문집에는 孔府, 李行, 河崙, 閔霽, 權近, 南在, 李九齡, 李稷, 李詹, 趙云佐, 趙浚, 鄭道傳, 張躋, 朴可恒, 鄭擢 등 다양한 인물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정치행로를 함께 했던 인물뿐만 아니라 달리 했던 인물도 포함하고 있다.

36) 『陽村集』 卷4, <獨谷成密直與趙判事唱和詩韻凡十一篇次寄趙判事韻>

구하였으며, 정신세계는 맑고 깨끗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河崙이 쓴 <獨谷謙坐圖贊>을 살펴보면, 독곡은 관직에 있을 때나 물러나 있을 때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오직 홀로 있을 적에 더욱 조심한다는 것은 증자와 자사의 전통적인 교훈이다. 공자의 심학은 실로 이것이 가장 앞서는 것이다. 오직 선생의 홀로(獨)는 아마도 그 내용을 체득한 것이리라. 오직 내용을 체득하였으므로 곡(谷)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 마음속에 든 것이 있기 때문에 체와 용이 다 통한다. 세속에서 그리위함이 없으며 벼슬을 하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심경은 마찬가지였다. ……³⁷⁾

河崙은 성석린의 自號 ‘獨’자와 ‘谷’자를 中庸에 입각하여 풀이하고 있다. 마음의 體인 性은 타고난 것이고 마음의 用인 情은 性이 발현된 것으로, 독곡이 내적으로 도덕적 수양에 힘쓰며 이와 더불어 외적으로는 실생활 속에서 자신이 쌓은 道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면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독곡의 삶의 기저에는 체용을 겸비한 내적 수양과 외적 실천 모두를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독곡의 내면적 수양은 儒敎에서 뿐만 아니라 佛敎 敎理의 淸淨한 세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麗末鮮初의 사대부들은 朱子學的 이념을 들어 佛敎의 현실적 타락을 정면으로 비판했지만, 신앙이나 정신생활 영역에서는 佛敎가 면면히 유지되고 있었다. 독곡이 佛敎수용에 극단적이지 않고, 佛敎의 정서와 교리에 관심 드러낸 것은 그의 中庸的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독곡이 儒者로서 佛敎에 대한 생각을 詩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出世非吾道 출가는 우리 유도 아니지만,

37) 『東文選』卷之五十一, 贊 <獨谷謙坐圖贊>, “維獨之慎. 曾思所傳. 室門心學. 實此攸先. 維翁之獨, 盖得其情, 維情之得, 于谷以名, 維谷之密, …… 有存乎內, 體用攸通, 無慕乎外, 仕已攸同, ……”

論交是故人	교분 맺었으니 이 또한 친구라네.
千江無別月	천강에는 별다른 달 없고,
四海一般春	사해에는 전체가 봄이로다.
手裏孤筇老	손 안에 지팡이 낡았으나,
瓶中淨水新	병 속에 정수는 새롭도다.
飄然從所適	표연히 마음 맞는 곳을 쫓아가니,
邈矣誰能親	아득하여 그 누가 가까이 할까? ³⁸⁾

독곡은 儒敎와 佛敎가 가는 길은 다르지만 달이 떠오르면 그 빛이 모든 강에 똑같이 비추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儒·佛의 근본적 이치는 하나라고 하면서 惠祥禪師와의 交遊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서 독곡은 儒敎와 佛敎의 學問적 수양과정과 처세방법은 비록 다르지만, 지향하는 정신세계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독곡은 佛敎 經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頭白齒牙黃	머리는 희어지고 치아는 누래져도,
胸襟霜雪潔	흉금은 백설처럼 결백하다네.
潛心楞嚴重	능엄경에 심히 마음을 두어,
濁水澄得澈	흐탁한 물 맑음을 얻은 것이라오.
縱之彌大千	경전 흠어놓으면 대천에 가득 차나,
收拾不容髮	수습하면 털끝만큼도 담지 못하네.
聞道有後先	도를 깨달음에는 선후가 있으니,
固不在投絃	진실로 관직 그만둠에 있지 않네. ³⁹⁾

(후략)

독곡은 자신의 심신 수양을 위해 楞嚴經⁴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38) <次浩亭韻 送惠祥禪師遊松廣社 89>

39) <次韻寄趙判事云佐 22>

40) 佛經의 이름. 모두 열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心性和 本體를 천명한 책이다.

있으나 심취 정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道를 깨달음에는 先後가 있으니 먼저 마음의 本體를 깨쳐야 한다. 그러므로 관직을 그만두고 굳이 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현실적인 삶을 놓지 못한 것으로 보아 佛敎의 수용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독곡의 詩에서는 佛敎뿐만 아니라 道家的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도 보이는데, 이는 유연한 태도로 다양한 學問과 思想을 폭넓게 취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學問은 儒家的인 성향을 근본으로 하여 관직에 나아가 經世濟民에 뜻을 두고 있으며, 儒者의 삶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독곡의 學問적 성향은 詩意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詩는 詩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발로되고 기운이 충만 되어 말이 통달해져서 시를 읽어보면 작자의 인물됨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獨谷集』의 저술은 기운이 웅장하고 호방하며 사는 풍부하면서도 아름다워 꾸미는데 급급하지 않았는데도 정채가 찬란하여 읽어보면 저절로 기뻐진다. 그리하여 한 글자 한 글귀를 지음에 있어서도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심하는 여타 문장가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로 인하여 공이 높은 도덕과 위대한 업적, 그리고 풍부한 문장으로 한 시대를 울렸음을 볼 수 있다.⁴¹⁾

윗글은 徐居正이 『獨谷集』에 쓴 序文으로, 독곡의 인물됨과 詩文의 특성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獨谷集』의 風格이 雄壯豪放하고, 詞의 표현이 인위적인 조탁에 힘을 쏟지 않더라도 富麗함은, 독곡의 깊이 있는 學問的 수양과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그의 文學的 才能이 뛰어난을

41) 徐居正, 獨谷先生集序, “然詩非徒詩也 心之發氣之充辭之達 讀其詩 可以知其人 今是編 氣雄以放 詞贍而麗 不屑屑於雕篆 精彩爛然可喜 非他文人詞士安一字下一句 苦心撚鬚者之比也 抑因是槩見公道德之高 勳業之盛 文章之富 而能鳴一代之盛者矣”

찬사하고 있다. 그래서 詩를 짓기 위해 고심하는 여타의 문장가에 비길 것이 아니라고 評하고 있다. 여기에서 徐居正은 아무리 훌륭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때를 만나지 못해 官僚로서의 경륜을 펼 수 없다면 豪富한 문장을 지닐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독곡의 文章을 評價하는데 있어 文章만을 보지 않고 인품, 治國과 백성의 教化에 공헌한 정도를 같이 포함시키고 있으며, 독곡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독곡은 높은 도덕적 인품을 지녔고, 관인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한 업적이 크며, 넉넉하고 다양한 文章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음을 말하고 있다.

일찍이 文場에 승리하여 예원에 이름을 떨쳤으며, 세상에 빛나는 기린과 봉황의 자질로서 방현령과 두여회의 경륜을 쌓았다. 學問은 동중서와 한유의 정심한 학술로 빛났고 기타 시술의 엄정한 것이나 필법의 정묘한 것은 모두 여사였다.⁴²⁾

이 글은 世宗이 친히 내린 祭文으로 독곡이 文章家, 政治家, 儒學者로서의 뛰어난 점을 극찬하고 있다. 世宗은 그의 學問이 지극해져 詩律의 엄정함과 筆法의 정묘함을 이룬 것은 餘事라고 하였지만 결국은 그의 詩的 才能을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곧 道가 바탕이 되어 있으면 文章 속에 자연스럽게 발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의 朱子學的 文學觀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독곡은 먼저 內面의 道를 쌓는데 주력했으며, 詩律과 筆法은 한가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독곡은 일상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시 짓기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련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父親의 訓導에 의해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42) 『東文選』 賜祭文, “早捷文場橫翔藝苑以麟鳳瑞世之資蘊房杜經綸之業而文之以董韓學術之精深他如詩律之嚴筆法之妙皆其餘事”

문장이란 마땅히 스스로 겸손하여 남만 못한 것처럼 나타내는 것이
좋다. 재주를 자랑하여 현혹시키는 것은 화를 부르는 것이다.⁴³⁾

文忠公 趙浚이 座主인 文靖公 李穡을 모시고 잔치를 베푼 자리에서 독곡
은 祝賀詩⁴⁴⁾를 읊어 많은 高官들을 탄복케 하였다. 그러나 父親은 아직까지
政治가 안정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자신의 文學的 才能을 형식적 기교
에만 치우쳐 본질을 망각한 채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 일로 독곡은 크게 뉘우쳤으며, 父親의 訓導는 官僚文
人으로서 그의 詩作活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다음은 독곡의 詩文에 대한 의식을 표명하고 있는 시이다.

緣飾非循吏	글을 아름답게 꾸임은 循吏가 아니요,
酸寒未學軍	가난한 유자 군사일 배우지 않는다네.
哦詩俯明鏡	시 읊으며 거울 같은 강물 굽어보니,
片白落飛雲	한 조각 흰 구름 낮게 떠다니고 있네. ⁴⁵⁾

이 시에서 이상적 官僚상인 修己治人을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는 教化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정치에 비중을 두어야지 실속 없이 겉만 그럴 듯
하게 꾸미는 문장을 일삼아서는 안 되며, 儒者는 道를 몸소 체득한 사람으
로서 學問에 목적을 두어야지 가난하다고 군사 일을 배워 武士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읊고 있다. 결국 나라와 백성을 위해 道와 教化를 실천하는
사대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官僚상은 예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朱子學의 영향으로 더욱

43) 徐居正, 『東人詩話』 卷下, “文章當自損示屈於人. 誇才眩能. 取禍之道也. 深謹之. 獨谷悔謝.”

44) <趙政丞慰恩門李侍中席上 298>

45) <次公州亭子船詩韻 199>

강화된 것으로 그의 官僚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그의 삶은 바쁜 벼슬살이의 연속이었고, 조선조에 들어와 領議政까지 올라 정치의 중심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태종 7년에 時務 20條를 상서하면서 王道政治와 德行으로써 백성을 教化할 것을 충간하고 있다.

무릇 나라를 가지고 집을 가진 자는 방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한 집에는 가장이 된 자가 몸소 거느려서 힘써 행하면 성효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식량을 족하게 하고 군사를 족하게 하는 것이 한 나라의 방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소의간식하고 진념하시어 중외에 영을 내리셔서 일체의 급하지 않은 비용은 다 쓸어버리시고, 힘써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족하게 하여 백성들과 더불어 좋고 나쁜 것을 함께 하소서.⁴⁶⁾

독곡은 麗末에 겪은 잦은 외적의 침략과 약탈을 보면서 실질적인 富國強兵을 절실히 염원했던 것이다. 지금 나라가 태평하더라도 재해나 침공의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며, 집집마다 의식을 풍족하게 하여 백성들과 喜怒哀樂을 함께 하도록 청하고 있다. 즉, 根本과 末端을 깨달아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정해서 실천에 옮겨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教化하는데 매진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독곡의 學問의 목적은 관직에 나아가 임금을 도덕적 차원으로 이끌어 옳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보필하여 太平聖代를 구현하는데 이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독곡의 생각은 『大學』의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구절과 상통되는 부분이며, 朱子의 實踐倫理에 근거한 忠君愛民의 정신이 잘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詩 속에서 公利的이고 社會的 效用性을 목적인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다.

46) 『태종실록』 13卷, <7년 1월19일조> “凡有國有家者 不可無備 一家則爲家長者 躬率力行 乃有成效 今茲足食足兵是爲 一國有備之具 恭惟殿下 宵旰軫念下命 中外盡掃 一切不急之費 務令家給人足 與民休息”

三綱明似日	충, 효, 열이 태양처럼 밝으니,
一死視如毛	한번 죽음을 털끝처럼 여겼네.
形影終相弔	몸과 그림자만이 서로 위로해도,
貞良固所操	정조와 어질음은 굳게 지켰네.
垂髫知職分	어린 나이에 자식 된 직분 알아,
割臂答劬勞	팔뚝 살 베어 부모 은혜 보답했네.
東國桂枝秀	동국에는 계수나무 빼어나고,
北庭秋氣高	북쪽 뜰에는 가을 기운 드높네. ⁴⁷⁾

僕長壽⁴⁸⁾의 조부인 上部 運의 忠, 그의 부인의 烈을 비롯한 아들 文質의 孝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들의 고향 元까지 널리 자자함을 찬양하고 있다 이 시는 요청에 의해 지었다⁴⁹⁾고는 하지만 三節堂의 忠·孝·烈은 이 당시 혼란해진 백성들의 강상을 확립하는데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 前 淸道郡守 朴晉의 廬墓詩卷에 쓴 시에서도 綱常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三綱天地經	삼강은 천지의 법도이니,
萬古日星明	만고에 해와 별처럼 빛나네.
物或無其則	사물에 혹 법칙이 없다면,
吾何有此生	내 어찌 이생에 있겠는가?
孩提才體具	어린 아이 비로소 몸 갖추어지면,
愛敬已心萌	사랑과 공경의 마음 이미 싹트네.

47) <題三節堂詩卷 48>

48) 1341-1399, 字는 天民, 號는 雲齋 이고 위구르 사람으로 공민왕 8년 아버지를 따라 귀화 하였다. 136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와 조선 걸쳐 관직을 역임했으며 중국어에 능통하여 8차례 사신으로 명나라에 왕래 했고, 시와 글씨에도 능하였다.

49) 三節堂의 忠·孝·烈에 대해 읊은 詩는 權近, 李穡의 문집에서도 보이는 데 僕長壽가 자기 집안의 忠·孝·烈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詩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願我頭渾白	돌아보니 이내 머리 온통 백발이나,
思親意轉輕	아버이 생각하는 마음 점점 소홀해지네.
看君能盡職	그대를 보니 자식 된 도리 다하고 있느니,
有子豈虛名	자식으로서 어찌 부모의 명성 헛되게 하리오?
夙夜念無忝	하루 종일 욕되지 않음을 생각하고,
尋常如捧盈	언제나 가득찬 물그릇 받들 듯하네.
三年懷抱愛	삼년간 품안에서 키워주신 사랑 생각하여,
百世立揚情	평생을 입신양명에 뜻을 두었네. ⁵⁰⁾

(중략)

三綱은 人間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로 도리로, 이 시에서 독곡은 三綱을 최고의 윤리적 가치로 보고 있다. 그 중 孝에 초점을 두어 읊은 것으로, 孝는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뿐만 아니라 나아가 임금을 섬기고 도를 행하여 후세에 이름을 떨치는데 까지 이른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독곡의 시에서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教化하기 위한 公利的이고 社會的 效用을 목적으로 쓴 시들이 많다. 詩世界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특히 독곡은 使臣가는 관리에게는 외교적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방관으로 떠나는 이들에게는 백성의 教化에 힘쓸 것을 부탁하고 있다. ‘王化는 제일 먼저 행해야 하지만, 백성들 풍속 또한 가벼이 여길 수 없네’⁵¹⁾, ‘백성 사랑하여 노심한 것 보려거든, 어린이와 노인의 동요 들어보시오’⁵²⁾라고 말한 詩句에서 지방관에게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백성의 教化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독곡은 詩를 통해 教化의 목적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여 순수 詩人으로서의 면모도 볼 수 있다. 삶의 다양한 감정

50) <占生字 題前清道朴晉廬墓詩卷 28>

51) <送京畿監司金彌 210> 起句와 承句, “王化所先行 民謠亦不輕”

52) <贈李洽赴咸陽 344> 轉句와 結句, “欲知撫字心勞處 看取黃童白叟謠”

을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으며, 자연을 시적 대상으로 하여 자연이 지닌 속성을 다양하게 표현하였고, 官僚生活에서 오는 갈등과 불만을 脫俗的 세계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독곡은 朱子學을 바탕으로 폭넓은 學問과 다양한 사상을 개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詩意識을 구축하고 있다. 즉 전형적인 官僚文人으로서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교화의 목적으로 詩의 효용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면서도 그 이외 서정의 자연스러운 시심이나 흥취를 읊은 것으로 볼 때 다양한 詩意識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IV. 詩世界

1. 作品概觀

독곡의 詩文은 1442년(세종24년) 세종의 명으로 經筵에서 정리 편집하여, 14년 뒤인 1456년(세조1년) 6월에 孫婿인 평양감사 金連枝가 初刊本을 간행하였다. 金連枝는 行狀을 직접 지어 문집에 붙였으며. 序는 徐居正에게, 跋文은 독곡의 姻族인 趙瑾에게 부탁하였다. 불행히도 이 초간본은 국내에 전해지지 않으며, 일본 蓬左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 重刊本은 4년 뒤인 1460년에 金連枝가 慶尙道 觀察使로 부임하여 있을 때 진주에서 문집을 재 간행한 것으로 체재, 편차, 자체, 판식이 초간본과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초간본의 복각본으로 짐작되며, 현재 고려대학교 晩松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韓國文集叢刊』의 저본이기도한 重刊本은 序의 제2판과 上卷의 제3판이 낙장이므로 초간본으로 대체하였다.

三刊本은 1919년 창녕 鶴浦에서 문집의 일부를 정선하고, 부록을 첨입한 활자본으로, 『獨谷先生遺集』을 간행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88년에는 獨谷先生集編纂委員會에서 초간본을 저본으로 하여 『國譯獨谷先生集』을 간행하였다.⁵³⁾

본고에서 주 텍스트로 삼고자하는 『獨谷集』은 民族文化推進會에서 발행한 韓國文集叢刊本이다.⁵⁴⁾ 『韓國文集叢刊』은 上, 下 2卷을 합한 시책으로 권상에는 序, 行狀, 詩 187題가 있고, 卷下에는 詩 269題와 跋文이 실려 있다. 그러나 성주본⁵⁵⁾에 의하면 권상에서 연작시로 지은 시 중 한 首는 常建이 지

53) 『韓國文集叢刊解題』 1卷, 민족문화추진회, 1992, p.79참조

54) 『東文選』 7수, 『靑丘風雅』 3수, 『國朝詩刪』 4수, 『大東詩選』 4수 등 시선집에 실린 몇몇 詩는 참고 자료로 삼고자한다. 제목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내용은 같다.

은 시이므로 한 首⁵⁶⁾는 제외해야 하며 또한 원집에서 누락된 시 3首⁵⁷⁾를 더 하면 모두 459題 549首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살펴보고자 하는 詩는 총 459제 549수이다.

시 형식을 살펴보면, 歌行 2題2수, 五言古詩 10題10首, 七言古詩 13題17首, 四言詩 1題3首, 六言詩 1題1首, 雜言詩 1題1首, 五言律詩 96題100首, 七言律詩 65題69首, 五言絶句 58題70首, 七言絶句 212題276首가 실려 있다. 五言詩와 七言詩가 전체 詩의 94%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七言絶句의 연작시⁵⁸⁾가 많은데 이는 잇따른 시상과 구체적인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그 외에 양은 적지만 다양한 형식의 詩는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의 시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총 459題 549首의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시체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이 많지 않다. 부임 가는 이에게 주는 詩와 挽詩의 경우는 연대의 추정이 가능하며, 국정이 혼란했던 여말의 작품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혼란한 정치적 실정을 신랄히 표현하지 않았으며, 주로 국가 안위와 백성들의 삶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늙음과 太平聖代에 대해 쓴 詩가 종종 보이는 것으로 보아 대개 현달한 지위에 올랐던 선초에 지은 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送別詩, 次韻詩가 전체 詩의 45%(208題)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和答詩, 輓詩, 詩卷에 쓴 詩, 寄詩, 祝賀詩, 贈呈詩, 謝禮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관례적으로 읊은 詩와 일상생활을 통한 개인적인 감정을 읊은 詩의 내용으로 독곡의 활발한 交遊와 진솔한 인간미를 알게 해 준다. 제목에 관직명, 인명, 지명, 樓臺 등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거론된 인물은 약

55) 평양본을 저본으로 한 필사본으로 발간 시기는 알 수 없다.

56) <偶讀常建閑齋臥病詩心與境會 三復吟已 仍用其韻 寄呈騎牛子 二首 26>

57) <次朴忍堂昭登終南山韻 457>과 <留呈四友堂朴忍堂以四友爲號 458>는 忍堂集과 鶴浦本에서 <次權可遠和李周道 459>는 詩學韻叢에서 찾아 보충하였다.

58) 고시5題 11首, 오언율시4題 8首, 칠언율시4題 8首, 오언절구7題 19首 칠언절구45題 109首로 모두 65題 155首로 전체 首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단 오언율시 연작시 중 상건이 지은 詩를 합해 놓은 詩는 제외하였다.

200여명에 이른다. 그 중 騎牛子 李行에 대한 詩가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독곡과의 친분이 돈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騎牛子 李行과 交遊한 詩에는 대부분이 醉樂風流와 神仙의 정취를 풍기고 있다. 그리고 독곡의 詩에는 스님들과의 交遊한 詩가 많은데, 스님의 이름을 제재로 쓴 詩, 스님의 詩卷에 쓴 詩, 山寺에 가서 쓴 詩 등이 72首이다. 이러한 현상은 독곡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사대부들은 儒敎를 표방하면서도 그들의 일상생활과 의식 속에는 여전히 佛敎와 道家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편의 詩 속에 儒敎와 佛敎의 내용이 혼입되거나 道家와 佛敎의 내용이 혼입되어 표현하기도 하였다. 儒敎를 주체로 하면서 佛敎와 道家를 함께 공유한 개방적인 사유가 詩를 통해 다채롭게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詩들은 주로 세속을 벗어난 淸淨한 세계와 官僚생활에서 오는 염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앞장에서 살펴본 詩意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詩世界를 분류해 살펴보고자 한다. 1) 官僚的 面貌에서는 독곡이 대부분의 생애를 관직 생활을 한 전형적인 官僚文人으로서 사회에 대한 관심의 표출양상과, 2) 日常的情趣에서는 삶에 대한 꾸밈 없는 감정 표현을 통해 독곡의 ‘渾厚한 詩風’과 훈훈한 인간미를 살펴본다. 3) 自然交感의 興趣에서는 자연물의 다양한 인식을 통해 그 속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살펴보고, 4) 脫俗世界에의 憧憬에서는 佛敎와 道家의 탈속적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펴본다.

2. 作品世界

1) 官僚的 面貌

독곡은 20세에 등과하여 83세에 致仕하기까지 高麗 末에서 朝鮮 初를 걸쳐 각각 네 임금을 섬겼다. 그의 生涯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을 관직에 머물면서 儒家의 기본원리인 修己治人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의 詩에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官僚로서의 면모를 형상화한 작품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임 받아 가는 이들에게 써 준 送別詩에는 官僚로서의 愛民意識과 本分意識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詩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임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개개인마다 각기 다른 忠言과 부임 가는 곳의 지방색도 미리 알려주고 있다. 독곡의 忠言은 실제 여러 차례 外職을 역임⁵⁹⁾하면서 백성의 삶을 직접 보고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며, 정종 때 의정부에 봉직된 후에는 올바르게 능력 있는 관리를 뽑아 직접 임명⁶⁰⁾하기도 하였다. 독곡 역시 태종 6년(1406) 正朝使로 발탁되어 떠나기 전에 순조로운 임무 수행을 위해 이미 경험이 있던 權近에게 忠言의 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사대부 간에 하나의 관례로, 사행을 받들거나 부임을 받아 지방관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관직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忠言의 글을 부탁하기도하고 반대로 써 주기도 하였다.

다음은 劉訓이 밀양으로 부임 갈 때 지어준 것으로, 독곡의 官僚意識이

59) 공민왕 17년 해주목사, 공민왕 20년 평안도 좌윤, 우왕 14년 양광도 관찰사, 태조 3년 판개성부사, 태조 4년 판한성부사, 태조 5년 개성유후, 태조 7년 경서북면도순문찰리사 병마사절도사 평양부윤, 태종 2년 검판개성유후사

60) 金連枝, 獨谷先生行狀 ,, “居廊廟掌銓選二十有五載”

잘 표현되어 있다.

呵嚙風化首	간절히 꾸짖노니 풍화는 으뜸이라,
邦本在群黎	나라의 근본은 여러 백성들이라오.
休戚身全繫	기쁨과 근심 모두 그대에게 달렸으니,
差科手所提	빈부에 따라 부역 손수 처리하구려.
江深魚樂極	강물 깊으니 물고기 즐거움 끝없고,
樓迥鳥飛低	누대 높으니 나는 새들 낮게 보이리니.
花柳登臨日	노는 곳 찾아 높은 곳에 오르는 날엔,
能令醉眼迷	취한 눈에 갈 길 잃게 하겠구나. ⁶¹⁾

수련에서는 나라의 근본인 백성의 教化가 첫 번째 임무임을 간절하게 말하고 있으며, 함련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백성의 행복은 관리에게 달려 있으니, 지나친 負役으로 인해 백성들의 생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은 직접 나서서 貧富에 따라 공평한 공무수행을 하여 적극적인 선정을 베풀 것을 유훈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런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떠나니 슬퍼할 일이 아닐 것이다. 경련은 ‘鳶飛戾天 魚躍于淵’⁶²⁾을 인용한 구절로 각자 부여받은 본성에 따라 생명을 누리는 평안한 경치묘사를 통해 자연에서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길은 지방관으로서 正道에 맞게 백성을 잘 살피는데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미련은 고을이 평안해져 백성과 더불어 높은 곳에 오르는 날, 경치와 기쁜 마음에 도취되어 길을 잃게 되지 않을까하는 여유까지 부러보고 있다. 이 詩에서는 슬픈 감정을 주로 드러내는 등의 送別詩의 상투적인 시상은 찾을 수 없으며, 독곡은 모든 폐단의 근본과 민생의 안정이 官僚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보고, 유훈에게 官僚로서 도덕적 실천이 우선시 되어야함을 당부하고 있다.

61) <戲別劉直中訓赴密陽 55>

62) 『詩經』 大雅 <旱麓> 과 『中庸』 十二章, “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

다음은 사신으로 가는 郊理 崔興孝를 송별한 詩로, 使臣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라는 당부가 담겨져 있다.

聖朝重儒雅	조정에선 박식한 이 중시해서,
校理非冗官	교리는 하찮은 직무 아니라네.
使華衆所羨	사신감은 모든 이들 부러워하니,
忠信良獨難	충신함 진실로 어려워서라.
吉凶與悔吝	길흉과 다투치고 한탄함이,
皆由三寸端	모두 세치 혀에서 나온다네.
黃卷有斯語	서책에 이러한 말 쓰여 있으니,
請莫以人看	청컨대 내 말로만 듣지 말게나. ⁶³⁾

『論語』에 ‘詩 삼백 편을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政治를 말했을 때에 통하지 못하며, 사방의 나라에 사신을 나감에 전결하여 상대하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안다고 해도 무엇 하겠는가?’⁶⁴⁾라는 말이 있다. 詩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침잠하여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使臣의 역할수행이 쉽지 않음을 알게 해준다. 朝廷에서 관리를 등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도덕성과 박식함을 우선으로 삼는다. 특히 외교문서의 작성을 담당하는 관리의 문장력은 국가 간 교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며, 사신들의 적절한 언어구사력 또한 그러하였다.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명확한 표현으로 뜻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독곡은 간결한 내용의 詩로서 충고하였다. 崔興孝의 높은 學識과 忠信한 인물됨을 은근하게 추켜세워 주면서도 그가 맡은 임무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古人들의 서책

63) <崔郊理興孝朝京師贈別 32>

64) 『論語』 子路 “子曰 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奚以爲”

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자신의 말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다음 詩에서는 말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신의 모습과 평온한 백성들의 삶을 보고 뿌듯함을 느끼는 典型的인 官僚의 모습을 볼 수 있다.

簿書堆案日如年	장부가 책상에 쌓여 하루가 일 년 같으니,
如覺三韓我獨賢	삼한에서 나만 홀로 애쓰는 듯하네.
坐愛葵花傾向日	앉아서는 해를 향해 기우는 축규화 사랑하고,
起看松樹立參天	일어서선 하늘 높이 뻗은 소나무 바라보네.
烟生處處開新逕	연기 피어나는 곳곳마다 새 길이 열려있고,
雨足村村理廢田	비가 흠족하니 마을마다 묵은 밭을 일구네.
莫道太平還有象	태평세월 법도 있다 말하지 마라,
由來蕩蕩絕名焉	예로부터 넓고 넓어 이름 붙일 수 없다네. ⁶⁵⁾

이 詩는 독곡이 外職을 나가있을 때 쓴 詩로 보인다. 수련에서는 처리할 문서가 많아 나만 일하는 듯한 바쁜 官僚생활을 묘사로, 후구는 『詩經』의 ‘나만 일하느라 홀로 수고롭네.’⁶⁶⁾라는 句節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린 기색은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많은 일을 손수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다. 그래서 함련에서는 앉으나 서나 투철한 官僚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을 해를 향해 기우는 축규화와 하늘 높이 뻗은 소나무에 투영해서 임금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경련은 누대 아래에 펼쳐진 시골 마을의 평안한 풍경 - 즉, 넉넉해진 생활로 저녁밥을 짓느라 연기를 피우고, 집집마다 길이 이어져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졌으며, 농사일에 필수적인 비가 제때 내려 가뭄으로 묵혀두었던 밭을 일구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미련에서는 공자가 堯임금의 덕

65) <次公州樓詩韻 159>

66) 『詩經』 小雅 <北山>, “我從事獨賢”

을 칭송했던 것을 들어⁶⁷⁾ 지금 시절을 堯임금의 太平聖代에 비유하고 있다. 곧, 太平한 세상의 법도는 예로부터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넓어 이름 지어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詩 전반을 통해 태평세월을 실감하게 하는 넉넉한 생활과 안정된 분위기에서 官僚職을 수행하며 임금과 백성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독곡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독곡은 관직에 임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公利적이고 사회적 效用을 지향하고 있다. 독곡이 지은 挽詩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挽詩는 亡者에 대한 슬픔을 전제로 하지만, 독곡의 詩에서는 슬픈 감정보다 亡者가 남긴 업적을 기리는데 초점을 둔 詩가 많다. 다음 詩는 吉昌君 權近에 대한 挽詩로, 그의 學德과 人格에 중점을 두고 있다.

入學圖成已透關	입학도설 이뤄내니 이미 관문을 통과하였고,
禮書淺見更難攀	오경천견록은 더욱 따를 사람 없다오.
文章肯在歐蘇後	문장은 어찌 구소의 뒤에 있겠는가?
性理當求濂洛間	성리학은 마땅히 염락 사이에서 찾아야 하리.
中國師儒思避席	중국 선비들도 자리에 일어나 경의를 표하고,
東方學者望如山	동방의 학자들은 태산처럼 우러러 보네.
非公爲慟而誰爲	공을 위해 애통하지 않으면 누굴 위해 하겠는가?
老淚焉能不再泫	이 늙은이 눈물 어찌 다시 흘리지 않으리오. ⁶⁸⁾

權近(1352~1409)은 高麗 末·朝鮮 前期의 文臣이며 學者이다. 戊寅亂으

67) 『論語』 泰伯,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대하시다. 堯의 임금노릇 하심이여! 높고 크다. 오직 저 하늘이 가장 크거늘 오직 堯 임금만이 그와 같으셨으니 (그 功德이) 넓고 넓어 백성들이 무어라 형용하지 못하는구나. 子曰 大哉 堯之爲君也 巍巍乎唯天爲大 唯堯則之 蕩蕩乎民無能名焉.”

68) <權吉昌君近挽章 183>

로 일부 개국공신들이 몰락하자 이후 태종의 즉위와 더불어 權近은 더욱 重用되게 되어 佐命功臣 吉昌府院君에 봉군되었으며 조선왕조 최초의 文衡(大提學)을 지냈다. 1409년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權近은 官學界의 실권자로 자리하였다. 수련에서 경련까지는 權近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의 객관적인 행적을 표현하고 있다. 수련에서는 權近이 저술한 『入學圖說』과 『五經淺見錄』에 대한 예찬을 하였고, 함련에서는 그의 뛰어난 文章과 性理學이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중국의 선비들도 權近의 학덕을 인정하여 깎듯한 예우를 표했음을 말하면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행적을 泰山에 비유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위의 여섯 구에서 일절 문면에 드러내지 않았던 슬픈 감정을 드디어 표출하면서 훌륭한 人才를 잃었음을 애통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한 사적인 哀悼의 뜻보다는 유능한 人才를 잃은 公的 喪失感을 표현해 내고 있으니 독곡의 철저한 官僚의식을 알게 한다.

이렇게 독곡은 權近에 대한 挽詩를 제외하고는 性理學에 대해 언급한 詩가 거의 보이지 않으나 이는 鮮初 대부분의 文人들에게 哲學的 저술보다는 文學을 통해 이미 이루어 놓은 盛世에 대해 수식과 찬사를 바치는 일이 더욱 艱요⁶⁹⁾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곡은 盛世에 대한 찬사 속에서도 임금에 대한 忠言을 잊지 않았다.

景福宮中慶會樓	경복궁 안의 경회루는,
翬飛勤政殿西頭	나는 듯이 화려하게 근정전 서쪽에 있네.
千年共我丕基固	천년을 받들어 온 큰 기업 견고히 하여,
不日仍他舊貫修	얼마 안 돼 전례 따라 옛 누각을 정비했네.
苑囿春回花似錦	동산에 봄 찾아오니 꽃은 비단처럼 곱고,
池塘雨過水如油	연못에 비 지나가니 물은 기름처럼 빛나네.
爲因時令施仁化	절기 따라 어진 교화 베풀기 위한 곳이지,

69) 김성룡, 『여말선초의 문학사상』, 한길사, 1995. p.9

景福宮은 조선의 正宮으로 태조 3년(1394) 10월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겨 王宮을 창건하기 시작하여 태조 4년(1395) 9월에 조성되었으며, 慶會樓는 태종 1412년에 景福宮의 연못을 크게 넓혀서 섬 위에 만들었다. 慶會樓는 임금과 신하가 모여 잔치를 벌이거나 使臣을 접대하는 곳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수련과 함련은 慶會樓의 위치와 조성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함련에서는 새 왕조의 盛世에 대한 찬사가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경련에서는 慶會樓의 수려한 경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봄 동산에 핀 꽃은 비단처럼 고우며 비 개인 뒤 연못의 물은 기름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음을 뜻하고 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경치이면서 동시에 새 왕조의 희망을 내포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련에서는 왕실에서 慶會樓라는 樓閣을 새롭게 단장한 진정한 존재의미를 서술하면서도 결국은 慶會樓에서 아름다움과 宴會에 빠져 자칫 政事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올바른 道로 백성의 教化에 힘써 줄 것을 임금에게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詩에서는 당대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있으며, 조선왕조의 무궁함을 비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이 시기 館閣風詩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 詩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紫禁沈沈擁瑞烟
盆池淡淡貯寒泉
地開玉盞雙蓮秀
天洩銀河一派連
日照光搖玄象表

궁중에는 그윽하게 상서로운 안개 끼어 있고,
분지에는 맑디맑은 차가운 샘물 가득 차있네.
땅에는 옥잔을 펼쳐놓으니 두 송이 연꽃 빼어나고,
하늘은 은하수 펼쳐놓아 한 갈래로 이어졌네.
해 비추니 햇살은 현상 표면에 흔들리고,

70) <慶會樓 126>

雲來影接泰山巔	구름 떠오니 그림자는 태산 꼭대기에 걸쳐있네.
霑濡永荷偏蒲質	은혜 무젓어 부들 심은 연못에 길이 입혀지니,
浸灌須均及稻田	모름지기 물 대는 논에까지 두루 미치리. ⁷¹⁾

태종 12년 1412년 5월에 宮庭에다가 盆池를 만들어 놓고 盆池貯寒泉을 題目으로 하고 ‘泉’字를 韻字로 삼아 여섯 명의 代言으로 하여금 詩를 짓게 하였는데, 독곡 차례가 되자 韻字에 따라 지어 임금에게 올린 詩 이다.

이 詩는 華麗, 謹嚴, 富麗함을 기본 조건으로 궁중의 엄숙하고 상서로운 분위기 속에 자리한 盆池의 맑은 샘물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玉璫과 밤하늘의 은하수로 화려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으며, 아른아른 피어오르는 따사로운 햇살과 태산에 걸쳐 있는 한가로운 구름에서 태평한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한다. 그리고 미련에서는 임금의 은혜가 연못의 물줄기를 통해 물대는 논에까지 두루 미쳐 백성들의 삶이 넉넉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의 應製詩도 임금의 御製詩에 응해 신하가 짓는 詩로, 밝고 희망적이면서도 官僚的 立場을 견지하고 있다.

喜氣氤氳溢兩宮	기쁜 기분 화평하여 양궁에 가득 차니,
雪中無處不春風	눈 속에도 봄바람 머물지 않는 곳 없으라.
孝誠能格皇天動	효성은 하늘까지 감동시켜 통할 수 있고,
頌禱難將筆舌窮	만수무강 축원함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오. ⁷²⁾

이 詩는 독곡이 고위관직에 올랐던 정종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구와 승구는 궁궐의 분위기를 묘사한 것으로 밝고 평안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눈이 남아 있지만 陽氣가 여기저기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71) <永樂十年壬辰五月日 作盆池於殿庭 命題曰盆池貯寒泉 以泉字爲韻 令六代言賦詩 及於老臣 謹依韻製進 125>

72) <應製 260>

곧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봄의 陽氣를 임금의 聖德과 맞물려 표현하여 따뜻한 陽氣가 눈을 녹이듯이 세상을 德으로써 잘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구는 독곡이 임금에게 간접적으로 規戒한 것으로, 모든 윤리의 근본인 孝를 임금이 먼저 실행하게 되면 곧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고, 결국은 하늘이 감동할 거라고 은연히 말하고 있다. 결구에서 독곡은 봄을 맞아 예의를 갖추어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신하된 위치에서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임금에게 전달하는 官僚文人으로서의 입장을 보여 준다.

독곡이 83세(세종 2년)되던 때 국가의 체제와 제도가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고, 開國功臣의 세력도 차츰 사라지게 되는데 독곡도 이 해에 공직에서 사임한다. 이 무렵에 나라가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文人들의 작품에는 성세에 대한 태평과 즐거움을 노래하였고 왕과 신하와 주창도 잦아졌다. 독곡의 詩에서도 태평시대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한 시구가 종종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盛世에 대한 찬미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詩는 官僚로서 의례적으로 지은 頌祝詩로, 太平聖代와 聖恩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잘 드러나 있다.

八十三回見上春	팔십삼 회 초봄을 맞이하였으니,
此生已作太平人	이 인생 이미 태평시대 사람 되었어라.
心中豈得無慚愧	마음 속 어찌 부끄러움 없으리요?
苟祿偷安但保身	녹 먹고 편히 지내면서 몸만 보전했으니. ⁷³⁾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太平聖代와 함께 맞이한 기쁨과 임금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무사히 몸을 보존하여 83세까지 和平을 누렸음을 감사히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할 일이 없을 만큼 나라가 태평해져 신하로서 녹만 먹고 몸만

73) <立春帖子 332>

보전한 것을 부끄러이 여기는 겸허한 官僚의식이 나타나 있다. 반면 곁에서 임금을 모시면서 신하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것에 대한 개인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은근히 표출하고 있다. 반어적인 표현을 통하여 太平聖代의 기쁨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독곡은 위로는 임금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위하는 중간자적 위치에서 官僚文人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는 詩를 통해서 官僚意識, 贊襄, 頌祝 등 의례적 요소를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儒敎 이념아래 公利的 效用에 비중을 둔 전형적인 官僚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2) 日 常 的 情 趣

위에서 살펴본 官僚的인 面貌에서는 독곡의 현실지향의식을 알 수 있었다면 官僚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생활을 통해 느끼는 사소하고 다양한 감정을 소재거리로 한 詩에서는 그의 人間的 面貌를 느낄 수 있다. 독곡은 日常事에서 느끼는 정취를 꾸밈없이 詩로 표현해내고 있는데 이러한 면모는 그의 성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가정에 있을 때에는 검소하게 생활하고 가산을 증식하지 않았으며, 곤궁한 자를 구제해주기 좋아하고, 약물 등의 하찮은 물건도 남에게 요구하지 않았으며 청탁을 해오는 자가 있으면 모두 거절하니, 사람들이 다 칭찬하였다.⁷⁴⁾

朝鮮 初期에 이미 宰相의 자리에 올라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官職에서 있건 물러나건 간에 화려한 생활을 향유하지 않았고, 평상시에도 검소하고

74) 獨谷先生行狀 ,, “至若居家以儉素, 自奉不事家業, 好施貧乏, 雖藥餌之微, 不索於人, 或有關請, 並皆斥之, 一時皆稱之”

청렴한 생활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의 詩 속에는 素朴한 삶의 情趣가 느껴진다.

經旬伏枕困炎蒸	베개 베고 누워 열흘 동안 무더위로 고생하다,
最喜朝來天氣澄	아침 되어 하늘 맑음이 매우 기쁘네.
步向東齋散腰脚	동쪽 서재 걸어도 허리와 다리 절룩이는데,
槐花亂落紫苔承	훼나무 꽃 어지럽게 떨어져서 이끼 붉다네. 75)

기구는 병중에 열흘 동안이나 한 여름의 더위에 시달려 독곡의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진 상태를 읊고 있다. 그래도 승구에서는 선선하고 맑은 기운이 감도는 아침 날씨로 인해 잠시나마 활력을 되찾아 기뻐하는 素朴한 심사를 토로하였다. 전구에서는 잠시 서재로 향하는 독곡의 모습에서 日常的인 생활을 알 수 있으며, 몸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는 표현에서는 그의 병세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결구는 여름의 정취를 형상화한 구로, 훼나무 꽃잎이 이끼 위에 떨어져 이끼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꽃잎이 어지러이 떨어져 아쉽지만 이끼를 덮은 꽃들의 붉은 빛깔에서 더위와 病苦에 지친 가운데서도 자연이 주는 작은 감동에도 느껴워하는 정취를 볼 수 있다.

다음은 고려 왕조에 대한 節義를 지키고 고향에 내려가 후진양생에 힘쓴 吉再의 悠悠自適한 삶을 묘사한 詩이다.

山下數間溪畔廬	산 아래 개울가 몇 칸의 초가집,
手栽松竹碧脩跡	손수 심은 푸른 송죽의 길고 성긴 가지.
細君洗酌開新醞	아내는 잔 씻어 새로운 술을 내놓고,
稚子挑燈讀古書	어린 아이는 등불 돌우고 옛 글을 읽고 있네.

75) <病中偶吟寄湖亭 304>

玩世肯爲中散鍛	세상 우습게보며 어찌 중산처럼 풀무질을 하리?
籀光正似子陵漁	빛을 감추니 바로 자릉의 낚시질과 같구나.
門前官道多冠蓋	문 앞 관도에는 벼슬아치 행차 많은데,
高臥從渠自覆車	높이 누워 그들 스스로 일 그르침 바라보네. ⁷⁶⁾

수련은 吉再가 사는 공간과 주위 풍경의 묘사이다. 금오산 아래 개울가에 집을 짓고 손수 松竹을 가꾸며 자연과 벗하며 살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 사는 隱遁者로서의 강렬함보다 素朴하게 살아가는 자연인으로서의 정취가 풍기는 삶의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함련은 철마다 새로운 술을 담아 내놓는 아내의 素朴한 모습과 등불을 돋우며 글공부를 하는 어린아이의 천연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아내와 어린아이의 日常的인 모습에서 시골의 인정미와 溫和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 이런 이유로 曹伸이 『謏聞瑣錄』에서 ‘近代의 詩 중 渾厚하다’⁷⁷⁾고 評價했음을 알 수 있다. 경련에서 竹林七賢 중 한 사람인 嵇康(中散)이 풀무질을 하며 철저히 세상을 거부했던 것을 말하면서 그보다는 낚시질과 밭갈이로 평안히 여생을 마친 子陵의 삶에 길재를 비유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세상일과 벼슬에 조금도 연연하지 않으면서 悠悠自適한 삶을 누리고 있는 吉再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吉再의 隱居生活은 일반적인 사대부의 隱居가 아니고 政治的인 패배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隱遁生活에 대한 불만이나 쓸쓸함은 조금도 묘사되어 있지 않다. 이 詩를 통해 독곡은 吉再를 節義之士의 이미지보다는 그의 淡泊하고 安穩한 日常的 情趣에 초점을 맞춰 抒情的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곡은 吉再의 溫和한 性品과 淡泊한 生活을 높이 평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실제로 독곡이 지향하는 정신세계와 상통하는 것으로 그의 진솔하고 소탈한 천부적인 性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76) <寄題吉再治隱 129>

77) 洪萬宗 編, 『詩話叢林』春, “近代詩 渾厚 如…獨谷 細君洗酌開新醞 稚子挑燈讀古書”

독곡의 이러한 소탈한 性品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은 詩作品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마주하게 되는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심회를 솔직하게 표현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그리움의 정서로 형상화되고 있다.

다음은 친구의 집에 자신을 초대해 주기를 바라며 부친 詩이다.

君家玉色醪	그대 집에 잘 익은 옥빛 막걸리는,
色味香俱絶	색깔, 맛, 향기까지 다 뛰어난데,
何當甕底眠	언제쯤 술항아리 곁에 자면서,
一慰相如渴	상여의 갈증 한번 위로해볼까? ⁷⁸⁾

李舒는 독곡의 同年으로 서로 가까이 지낸 친구이다. 예전에 李舒의 집에서 마셨던 막걸리를 잊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를 핑계로 하여 친구를 만나고 싶은 소박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밤새 마시고 취해 그대로 잠이 들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다정한 사이로, 독곡은 조만간 다시 만나서 회포를 풀고 싶어 한다. 결구에서는 司馬相如가 소갈증에 걸린 것을 인용하여 자신의 술에 대한 갈증을 풀고자하면서 은근하게 자신들을 司馬相如와 동일시하고 있다.

다음 詩는 반대로 친구를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

獨谷翁家花滿蹊	독곡 늙은이 집의 꽃은 길까지 만발한데,
苦嫌牢落意低迷	쓸쓸함 몹시 싫어 마음마저 아득하다.
畫堂深處金尊滿	화려한 집 깊은 곳에는 술잔 가득한데,
門外何曾聽馬嘶	문 밖에는 언제쯤 말울음 소리 들리려나? ⁷⁹⁾

78) <寄同年李典書舒 189>

79) <對花寄友人 262>

기구의 집에서부터 길까지 화려하게 만발한 꽃과 승구의 함께 구경할 이 없는 자신의 쓸쓸한 모습을 대비적인 표현을 통해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읊고 있다. 전구에서는 빼어난 경치와 잔을 가득 채울 넉넉한 술로 언제나 손님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구의 말 울음소리는 반가운 손님이 왔다는 기척으로 빠른 시일에 친구가 자기 집에 와 주길 애타게 바라고 있다. 이 詩는 자신의 집에 활짝 핀 꽃을 대하니 感懷가 일어 친구가 꼭 왔으면 좋겠는데 더욱이 술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꼭 오게나하는 당부의 모습을 정겹게 그려놓고 있다. 여기에서 독곡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다정히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죽음을 맞게 되면서 독곡의 슬픔은 극에 달한다. 그의 挽詩 중에서는 죽은 자에 대해 격식을 갖춰 그의 업적이나 행실을 서술하고 찬양한 詩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픈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한 詩들도 적지 않다.

다음은 宰相이었던 趙俛의 죽음을 애도한 詩에서 이러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溫溫吾益友	따뜻함을 지닌 나의 유익한 친구,
情話幾回同	정다운 얘기 몇 번이나 함께 했었나?
未必仁人壽	어진 사람이 꼭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니,
空留長者風	부질없이 그대의 기풍만이 남아 있구려.
塵捷經卷上	책 위에는 먼지만이 쌓여 있고,
火盡藥爐中	화로에는 약 다리던 불 꺼져 있네.
惆悵平生事	서글프다 사람 사는 한 평생의 일,
松楸夜月籠	무덤가엔 송추에 밤 달만 걸려 있네. ⁸⁰⁾

80) <趙俛宰相挽辭 123>

수련에서 독곡은 趙俛이 따뜻한 성품을 소유하였고 자신과 사사로운 정을 나누던 知己로 그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 함련에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으니 어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친구의 죽음을 통해 사람의 삶이 보잘 것 없음을 깨닫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친구의 훌륭한 기품을 새삼 느끼지만 서글픈 마음만 더할 뿐이다. 경련에서 주인 잃은 물건을 바라본 독곡은 친구의 不在를 확인하면서 친구에 대한 그리운 심정을 더 진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趙俛이 남겨 놓은 흔적들에 대한 묘사는 趙俛의 담박했던 삶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그려 놓은 것이기도 하다. 미련에서는 친구가 보고 싶은 마음에 그의 무덤에 찾아갔으나 松楸에 걸려있는 밤 달만이 무덤 주위를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하여 쓸쓸해하면서 동시에 人生無常의 정서를 읊고 있다. 이 詩는 亡者에 대한 깊은 哀悼의 정을 표현한 것으로 독곡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듯 독곡은 자신의 주변인물에 대한 감정을 솔직담백하게 그의 詩세계 속에 담아내고 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을 대상으로 한 詩에도 그들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드러내었는데, 이를 통해 그들과의 끈끈한 유대를 느낄 수 있어서 독곡의 다정한 성품을 짐작케 한다.

晩年零落小兒孫	만년에 영락하여 아들, 손자 적으니,
朝夕當思爾輩存	아침, 저녁 응당 너희들 있음을 생각하네.
一赴嶺南空入夢	한 명은 영남에 부임 가 헛되이 꿈에서 보고,
京畿雖近亦傷魂	경기도는 비록 가까우나 역시 마음 아프네. ⁸¹⁾

京畿觀察使로 나가는 조카 揜, 즉 石珣의 큰 아들을 전송한 詩이다. 기구에서는 자신의 자손은 불운하여 크게 영달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서술

81) <送猶子京畿觀察使揜 352>

하고 있다. 승구에서는 평소에도 조카를 친자식 못지않게 생각하는 독곡의 다정다감한 인간미를 알 수 있다. 이 해에 또 다른 조카 達生은 멀리 慶尙右道 都安撫使가 되어 巨濟로 부임 가니 꿈에서나마 볼 수 있을 뿐이고, 拵은 비록 가까운 京畿道로 나가지만 이 역시 보내는 마음은 섭섭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詩에서는 조카들을 생각하는 독곡의 은근한 정이 느껴진다.

다음 시는 독곡이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질게 형상화하고 있다.

舉目江山深復深	고개 들어 보니 강산은 깊고도 또 깊기만 한데,
家書一字抵千金	집에서 온 편지 한 자는 천금보다 소중하네.
中宵見月思親深	한밤중 달을 보니 어머니 생각에 눈물 적시고,
白日看雲憶弟心	한낮에 구름 보니 동생 그린 마음뿐이네.
兩眼昏花春霧隔	두 눈에 흐릿한 꽃 봄 안개가 가린 듯,
一簪華髮曉霜侵	비녀 꽂은 흰 머리는 새벽 서리 맞은 듯.
春風不覺愁邊過	봄바람 어느새 시름 속을 스쳐 지나가고,
綠樹鶯聲忽故林	푸른 숲에 피꼬리소리 홀연히 옛 숲인 듯. ⁸²⁾

첫 번째 유배를 간 咸安 근처 固城에 있으면서 동생에게 부친 詩이다. 수련에서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 깊숙한 산골짜기로 들어온 독곡에게 있어 집에서 온 편지는 千金보다 소중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함련에서 달과 구름은 그리움을 표현한 매개체로 밤낮으로 독곡의 마음은 온통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뿐임을 형상화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늙어 희미해진 시력에다 두 눈에 맺힌 눈물로 인해 봄 안개 속처럼 흐릿흐릿하고, 비녀를 꽂은 흰 머리는 서리를 맞은 것 같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락해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미련의 자신의 시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은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며, 푸

82) <己未年在固城寄舍弟 127>

른 숲에서 홀연히 들려오는 찌꼬리소리는 마치 고향 숲에 있는 듯 착각하게 하여 외로운 심정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눈앞에 펼쳐진 景物 하나 하나와 계절의 변화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자아내는 요소가 되어 독곡의 정서를 더욱 처량하게 만들고 있다. 이 詩는 杜甫의 詩<春望>에서 시상을 얻어 지은 詩로 난리 뒤에 흩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杜甫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같아서 독곡의 그리움이 간절히 표출되어 있다.

日常에서 훈훈하고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은 독곡의 가식 없는 성품과 소탈한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지나친 수식이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平淡하고 溫和한 감정을 淡泊한 시어들로 표현해 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읽는 이로 하여금 절실한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조신이 말한 ‘渾厚한 詩風’이라는 평가는 독곡의 이러한 면모를 집약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상에서의 진솔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의 詩세계는 독곡 詩의 또 다른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自然交感의 興趣

麗末에 유입된 性理學은 사대부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절제를 통하여 자연현상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연계시켜 안으로는 心性을 도야하고 밖으로는 윤리질서의 확립코자 하였다. 儒家的 理想을 추구하고자 했던 독곡도 다음 詩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내재된 理致를 인간의 삶과 연계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一萬二千峰	일만 이천 봉은,
高低自不同	높고 낮음이 제각기 다르다오.
君看日輪上	그대 보아라 해 돋을 때에,

金剛山으로 가는 스님을 전송한 詩이지만 이별을 아쉬워하는 감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金剛山의 일출 광경을 눈으로 보듯이 기상 넘치게 표현하고 있다. 더 나아가 金剛山 봉우리의 각기 다른 모습을 통해 인간이 得道하는 경지 또한 제각기임을 드러내고 있다. 五言絶句의 짧은 詩 속에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시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詩이다. 金宗直은 『靑丘風雅』에서 이 詩에 대하여 ‘道를 터득함에는 先後深淺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의 성품의 높고 낮음에 말미암는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⁸⁴⁾라고 하였으니, 詩 속에 함축되어 있는 독곡의 뜻을 정확하게 짚어낸 서술이라고 하겠다. 또한, 『詩話叢林』에서는 ‘五言絶句 중에는 독곡 성석린의 일만 이천 봉이 가장 옛스럽다.’⁸⁵⁾고 평하였는데, 이는 이 詩가 자연의 이치를 통해 인간의 삶과 연계시켜 나타내고자 하였고, 여기에 생동감 넘치는 시각적인 효과를 살려서 詩의 묘미를 한층 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독곡은 자연물을 性理學에 기반 한 철학적인 성찰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세밀한 관찰과 재치 있는 묘사를 통해 그 자체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여 지은 詩들은 기본적으로 사물을 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詠物詩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詠物詩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自省이나 規戒를 표현한 詩, 자신의 흥취나 회포를 토로한 詩, 사물의 사실적인 모습이나 생태의 묘사한 詩⁸⁶⁾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독곡의 시는 자연물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해내고자 하면서도 그 속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뜻을 은근하게 담아내고 있다. 『獨谷集』에는 비록 많지 않은 양의 詠物詩가 실려 있지만, 이를 통해 작

83) <送僧之楓嶽 214>

84) 金宗直, 『靑丘風雅』, “喻得道之有先後深淺, 由人性之有高下”

85) 洪萬宗 編, 『詩話叢林』冬, “五言絶 成獨谷石璘 一萬二千峰最古”

86) 김남기, 金老僧의 영물시 연구, 『韓國漢詩研究』2, 韓國漢詩學會, 1994. p.123

가가 자연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 詩는 五葉松에 대해 읊은 詩이다.

新羅松子載圖經	신라의 오엽송은 도경에 실렸으니,
一粒能延一百齡	한 개만 먹어도 백년 수명 연장한다네.
最愛歲寒風雪裏	가장 사랑스러운 건 설한풍 몰아치는 겨울에,
亭亭獨立又青青	독야청청 우뚝하게 서 있는 모습이라오. ⁸⁷⁾

눈 내린 뒤 睦判事의 정원에 홀로 서있는 五葉松을 보고 읊은 七言絶句詩다. 五葉松은 新羅의 圖經에 실릴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 열매(잣)는 사람의 몸에도 이로워 하나만 먹어도 백년 수명을 연장한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더욱 사랑할만한 이유는 雪寒風 속에서도 변함 없는 五葉松의 孤高한 자태이니, 어떠한 자연의 변화에도 꺾이지 자신의 모습을 지켜온 五葉松의 物性은 君子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 詩를 통해 작가는 五葉松이 사랑받는 진짜 이유를 열매가 주는 이로움보다는 그 나무가 상징하는 절개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소나무, 百葉類, 대나무, 菊花, 梅雨, 솔바람을 읊어 李行에게 올린 6수의 연작시 중에 소나무와 대나무에 관한 詩이다.

①

金剛千仞峯	천길 높은 금강산 봉우리에,
生此萬年松	바로 여기 만년송이 자라고 있네.
幾度風霜苦	몇 번이나 풍상에 시달렸지만,
不爲桃李容	도리꽃의 얼굴 모습 짓지 않는다.

87) <雪後 望見睦判事園中五葉孤松 因成一絶寄呈 250>

②

風梢弱裊裊 바람 부니 연한 가지 가볍게 나무끼고,
 露葉淨娟娟 이슬 젖은 깨끗한 잎 곱기도 하다.
 爲報山陰客 산음의 손에게 알리고자 함은,
 幽姿實可憐 그윽한 자태 실로 아름다워서라.⁸⁸⁾

① 기구와 승구에서는 아득히 높은 金剛山 봉우리에 위치한 老松의 孤高한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 전구와 결구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風霜에 시달렸지만 변치 않는 소나무의 모습에서 강인한 氣像과 節概를 나타내고 있으며, 화려하지만 쉽게 시드는 桃李花에 비교하여 그 면모를 극대화하고 있다.

② 기구의 바람 불어 나무끼는 유연한 가지와 승구의 함초롬히 이슬 젖은 깨끗한 댓잎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대를 잘 이루고 있으며 특히 ‘裊裊’, ‘娟娟’의 의태어를 사용하여 대나무의 清新한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전구에 보이는 ‘山陰’은 썸나라 명사인 王羲之의 아들 王徽之⁸⁹⁾가 태어난 곳이니 山陰客은 바로 그를 말한다. 그는 특히 대나무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서 “어찌 하루도 이 사람(此君) 없이 살 수 있겠는가?”라고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독곡은 이 멋스러운 대나무를 보자 그가 생각났던 것이다.

두 수의 詩에서 독곡은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지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소나무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志操를 변치 않는 節概를, 대나무에서는 맑고 깨끗한 君子의 고결한 인격을 닮고자 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때늦게 핀 梅花를 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梅花에 담아내고 있다.

①

春歸玉質倚踈籬 봄 가는데 옥 같은 자태 성긴 울 밑에 의지해,

88) <目前雜詠錄呈騎牛子 發閑中一笑 196>

89) 『晉書』 王徽之傳

脈脈還如有所思	외로이 되려 그리움 있어선 양.
應恨清寒無處用	응당 추위 속에 쓸 곳 없나 한이 되어,
故隨桃李鬪花時	일부러 도리화를 따라 함께 꽃피웠다.

②

獨詠西湖處士詩	홀로 서호처사의 시 읊으며,
扶兒幾度立移時	아이 붙잡고 몇 번이나 서성이며 시간 보냈던고?
縱教燕蹴紛紛落	비록 제비들 발짓으로 어지러이 떨어지나,
不爲傍人折一枝	사람에게 가지 꺾임 당하지는 않았으면. ⁹⁰⁾

①梅花는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物性 때문에 예로부터 高潔함을 상징하는 꽃으로 칭송되었다. 이 詩에서는 때늦게 피어난 梅花를 보고 반가우면서도 애처로움에 그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늦봄에 핀 梅花를 보면서 늘 추위 속에 외롭게 피었다 지는 것이 싫어서 봄꽃들이 모두 피는 시기에 함께 피었나보다고 애뜻해 하고 있는 것이다.

②西湖處士는 西湖의 孤山에서 隱居하면서 梅花를 심고 학을 키워 梅妻鶴子로 불리었던 宋代 隱士 林甫를 가리킨다. 기구에서 그의 詩를 읊고 있다 함은 梅花를 사랑하며 그 情趣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승구에서는 때늦게 핀 梅花가 인위적으로 꺾일까 勞心焦思하여 아이를 데리고 梅花의 주변을 맴돌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전 결구에서는 제비의 발짓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사람 손에 꺾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독곡은 늦게 핀 梅花의 모습에서 隱士然하고 있기에는 시기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읽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곡의 詩 중에는 자연물의 섬세한 관찰을 통해 物性の 아름다움을 발견하거나 특이함을 재치 있게 담아낸 작품도 있다.

90) <三月梅花二首 272>

昔曾銜命赴神州	옛날 일찍이 왕명 받들어 중국에 갔다가,
還到遼城數日留	돌아오는 길에 요동성에서 며칠 머물렀지.
共愛花枝分戶映	꽃가지도 사랑함은 문마다 어리 비취서니,
獨尋葵子滿囊收	홀로 축규화 씨 따서 주머니 가득 담아왔다.
傾心向日誠難奪	마음 쏟아 해를 향하니 정성 뺏기 어렵고,
衛足專生智亦周	뿌리 덮어 살려가니 지혜 역시 지극하다.
紫黑淺深紅與白	깊고 얇은 자주 흑 빛, 그리고 붉고 흰 꽃보다는,
重重巧剪最難求	겹겹이 피는 고운 꽃 잎 구하기가 어렵다네. ⁹¹⁾

이 詩는 손수 따온 축규화 씨를 星山 亨齋先生에게 주면서 축규화에 얽힌 사연과 그 속성을 자세하게 언급한 것이다. 수련과 함련에서는 축규화 씨를 중국에서 가져오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자신이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축규화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겨 씨를 채집하여 왔다는 것이다. 경련에서는 축규화가 지닌 성질을 서술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해를 향하는 정성의 지극함과 잎으로 뿌리를 보호하여 생명을 보전하는 지혜로운 속성을 가져서 축규화에 대한 애정을 더하게 된다고 하였다. 미련에서는 세상에는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다양한 꽃들이 있지만 유독 축규화는 꽃잎이 겹겹이 피는 어여쁜 접시꽃 모양을 하고 있어서 더욱 매력 있는 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귀한 꽃씨를 亨齋先生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니 꽃을 玩賞하는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작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詩에서는 꽃 하나에서도 그것이 가진 속성을 세밀하게 관찰해내고 그런 속성을 사랑하는 자신의 정신적 지향성을 투영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음 詩는 파리의 속성을 소재로 하여 혼란한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91) <手自採蜀葵花子 封呈星山先生亨齋 139>

秋後蠅還亂	가을 뒤에도 파리 되려 요란히 설치니,
營營如有爲	잉잉 날며 바쁜 일이 있는 듯하네.
曾聞憎以賦	일찍이 미워하여 賦 지었다 들었고,
又見怨於詩	또 시경 시에 원망하는 내용도 있다.
黑白工能變	흑·백색을 교묘하게 변화하면서,
腥羶聖得知	비린내와 누린내 잘도 맡는다.
無勞朝夕拍	아침, 저녁 수고롭게 잡을 필요 없으니,
會有朔風吹	마침내 차가운 북풍 불어오리니. ⁹²⁾

수련에서는 여름철에 들끓던 파리가 가을이 되어도 여전히 날아다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營營’이라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파리의 어지러운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자신만 파리를 미워하며 詩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파리를 소재로 하여 지어진 내용의 詩와 賦가 적지 않았음을 소개함으로서 파리의 속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보편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歐陽脩의 <憎蒼蠅賦>, 韓愈의 <憎蠅>, 『詩經』의 <青蠅篇> 등에서 파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내용을 신고 있다. 경련에서는 파리의 생태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때에 따라 흑·백으로 교묘하게 변화하고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해를 끼치는 그 모습은 바로 참소꾼 소인배의 모습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파리를 잡으려고 아우성을 치지만,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자연히 사라질 테니 애써 잡을 필요가 없다고 미련을 통해 결론 내리면서 소인배가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담고 있다. 이 詩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파리를 소재로 시상을 전개하여 소인배들로 인해 어지러워진 세태를 풍자하였다. 또한 ‘때맞춰 찬바람이 불어오리라’라

92) <憎秋蠅 34>

고 하여 소인배 없는 세상에 대한 단순한 희망과 기대를 넘어서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자기 의지까지도 표명하고 있다.

다음은 咸留後가 문어를 보내준 것에 감사하여 지은 詩로, 문어의 특이함을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海魚紛鉅細	바다 고기 중 크고 작은 것 많지만,
此物最佳哉	이 어물이 최고로 맛이 좋구나.
聞說巾尤美	수건 쓴 것 더욱 아름답다 들었는데,
誰教露頂來	누가 이마 벗겨 대머리로 만들었는가? ⁹³⁾

문어를 소재로 하여 지은 詩로 기구와 승구는 바다의 고기 중 문어의 맛이 가장 좋다는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친구와 결구에서는 문어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대머리에 비유하였으니, 독곡의 기발하고 재치 있는 표현이 돋보인다. 다른 詩에서도 사물을 기발하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백옥처럼 깨끗하고 길쭉한 쌀에, 은으로 장식한 큰 입의 고기라오’⁹⁴⁾(新米·銀魚)라든지, ‘노오란 작설은 향기로운데, 붉은 꼬리에 입은 은빛처럼 희네’⁹⁵⁾(차·물고기)라고 표현한 시구에서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과 재치 있는 표현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음 詩에서는 연꽃에서 느끼는 흥취를 담고 있다.

①

風吹細雨洒欄干	가랑비 바람에 흩날려 난간을 적시는데,
起繞新荷子細看	일어나 돌아보며 갓 핀 연꽃 자세히 구경하네.
不用紅粧相掩映	붉은 단장 안했는데도 은은하게 어울리고,

93) <謝咸留後惠文魚 232>

94) <謝全羅監司惠新米銀魚 229> “玉潔長腰粒 銀粧鉅口魚”

95) <謝慶尙道觀察使惠茶魚 224> “金芽雀舌香 頰尾銀唇白”

最宜池面碧團團 가장 보기 좋은 것은 연못 위의 푸르고 둥근 연잎.

②

慢綠天紅不我干 짙은 녹음 붉은 꽃들 나완 관계없어서,
烏紗白髮獨來看 백발에 오사모 쓰고 홀로 와서 구경하네.
廉溪和氣知多少 염계의 화한 기운 얼마쯤은 느낄 수 있으니,
更與清香作一團 다시 맑은 향기와 더불어 하나 되어서라.⁹⁶⁾

①객사에는 운치 있게 가랑비가 내리는데 마침 새로 핀 연꽃이 눈에 들어와 연못 주변을 돌며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 갓 핀 연꽃이 아름다운 것은 화려하게 단장하지 않은 은은한 아름다움 때문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담박한 멋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연못 위에 둥글게 우산을 펼친 듯 비를 맞고 있는 푸른 연잎이라는 것이다. 붉은 연꽃과 푸른 연잎의 선명한 색채 대비로 자연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빗속의 흥취를 살려내고 있다.

②녹음이 우거지고 온갖 꽃들이 붉게 피어있어도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다가 오직 깨끗하게 피어있는 연꽃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홀로 玩賞하고 있는 것이다. 연꽃을 대하고 보니 연꽃을 사랑하여 <愛蓮說>을 썼던 廉溪周敦頤의 溫和한 氣風이 느껴져 그가 연꽃에서 느꼈던 흥취를 알 듯도 하니, 그것은 연꽃의 아름다움과 맑은 향기가 하나 되어 어울려서라는 것이다. 결국 독곡은 자신의 物我一體의 경지에 이르게 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주렴계의 和氣에 동일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독곡의 詩 작품 중에는 자연물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그 物性の 특이함을 재치 있게 표현한 것들이 적지 않다. 이를 통해 독곡이 자연물을 보는 관점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는 사물을 본보기로 삼아 그 좋은 物性は 가려서 따르고, 안 좋은 物性は 경계하여 자신의 삶의 敎訓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런 자연 속에서 빈번하게 부딪히는 사물과의 交感은 때

96) <詠水原客舍新荷二首 425>

로는 자연과의 物我一體의 경지까지 경험하게 된다. 또한 독곡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기발한 시상 전개방식과 적절한 표현으로 드러내어 詩의 묘미를 배가시키면서도 정작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은 은근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렇듯 작가의 생각을 詩 文面에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아서 얼핏 보면 객관적인 사물의 묘사만을 다룬 것으로 보이지만 詩를 음미할수록 言外之意를 깨닫게 한다. 이로써 독곡은 자연의 敎訓·實用的 價値를 우선하면서도 동시에 詩의 含蓄美를 중시하여 서로간의 美的 調和를 이루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脫俗世界에의 憧憬

독곡은 儒者의 삶에 근본을 두어 충실한 官僚생활을 하였지만 시대적 상황 속에서 爲政者로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道家와 佛教世界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 脫俗世界에의 憧憬은 오랜 관직생활에 대한 염증으로 잠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도피처를 希求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徐居正은 독곡에 대하여 ‘風流와 文彩가 俗世를 벗어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神仙이라 했다’⁹⁷⁾라고 하였으며, 또 ‘公이 詩와 술에 질탕함은 李太白을 배웠다’⁹⁸⁾라고도 하였다. 이를 통해 그가 술과 詩를 매우 좋아했으며, 李太白의 豪放하고 奔放한 성품을 닮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朴崑의 ‘스스로 말씀하길 평생에 酒聖이라, 일찍이 꽃과 버들 따라 세상 일 잊었다네.’⁹⁹⁾ 라는 詩句를 통해서도 그의 醉樂風流的이면서 脫俗을 憧憬하는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隱士의 생활을 그려냄으로써, 脫俗

97) 徐居正, 獨谷先生集序, “風流文彩迥出塵表人望之爲神仙”

98) 徐居正, 獨谷先生集序, “公詩酒跌蕩學太白”

99) 朴崑, 『釣隱先生文集』 <奉贈成獨谷先生> 詩의 二句 “自道平生聖於酒 早從花柳謝因果”

에의 憧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獨向東 手採花	홀로 동쪽 울타리서 손수 국화꽃을 따니,
南山佳氣晚來多	남산의 아름다운 기운 저물녘에 더하네.
此間眞趣誰能辨	이 사이의 참다운 정취 누가 능히 알겠는가?
千載唯聞處士家	천년 동안 오직 들리는 건 처사의 집뿐이네.

②

醉翁長醉對黃花	취옹은 늘 취하여 국화를 마주하니,
此樂人間問幾多	세상에서 이 즐거움 누리는 이 얼마나 많은가?
窮達是非都不管	궁달과 시비 모두 관여하지 않고,
猶嫌釀酒未傾家	오히려 술 빚다가 재산 기울일까 걱정하네. ¹⁰⁰⁾

①이 詩는 陶淵明의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 따고는, 우두커니 남산 바라본다.’¹⁰¹⁾라는 <飲酒> 詩의 詩句에서 點化한 것으로 자연과 一體되어 悠悠自適하게 생활하는 陶淵明의 歸去來정신을 극찬하고 있다.

②기구와 승구에서는 늘 술에 취해 국화와 벗 삼으며 자연 속에서 悠悠自適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金醉翁을 말하면서 世俗에 얽매이지 않는 즐거움을 아는 이가 드물다고 하였다. 이런 삶을 누리는 醉翁에 대한 憧憬心이 묻어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구에서는 俗世에서 따지는 窮達과 是非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술과 벗하는 醉翁의 모습을 그려내었는데, 그가 이미 世態에 無心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①詩에서 陶淵明의 삶을 극찬하면서 ②詩의 金醉翁을 그와 동일시하는 의미에서 연작시를 읊은 것으로, 이를 통해 독곡의 脫俗세계에 대한 갈망을 짐작할 수 있다. 자연 속에 은거하여 사는 즐거움을 알고는 있지만 陶淵明이나 金醉翁의 모습처럼 살

100) <次浩亭 贈金醉翁愛酒與菊詩韻 二首 394>

101) “採菊東 下 悠然見南山”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에 대한 憧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은 李行을 神仙에 형상화한 詩로 독곡의 醉樂風流的 감흥과 상상력이 돋보이고 있다.

①

德彝不見太平年	德彝는 태평세월 미처 보지 못했는데,
八十逢春更謝天	팔십에 봄을 맞아 다시 하늘에 감사하네.
桃李滿城香雨過	도리화 만발한 성에 기쁜 비 내리는데,
謫仙何處酒家眠	적선은 어느 술집에서 잠자고 있는가?

②

北海先生氣桀豪	북해선생 같은 호걸스러운 기상은,
青天霹靂動揮毫	청천에 벽력처럼 붓을 휘두르고,
致身福地追攀絕	행복한 곳에 몸을 두니 따라 갈 수 없는데,
霞液瑤觴醉碧桃	옥잔에 하액 마셔 벽도 아래 취했겠네. ¹⁰²⁾

독곡이 李行의 집을 방문했으나 不在中이라서 만나지 못하고 지은 詩이다. 李行은 조선이 건국되자 隱居生活을 하였다가 다시 出仕한 인물로 독곡과 오래도록 교유한 사람이다. ①기구에서 德彝는 唐代 封德彝로, 唐太宗이 처음 나라를 다스릴 방침을 세우기 위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다가 魏徵의 仁義와 德彝의 刑法 중 仁義의 정치를 택해 태평세월을 맞이하는데, 德彝가 태평한 세월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만 것이 恨이라고 한 故事를 인용한 것이다. 승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팔십에 봄을 맞았다고 하여 자신과 李行 두 사람이 오래 살아서 태평세상을 보게 된 것을 하늘에 감사하고 있다. 전구에서는 桃李가 만발한 성에 기분 좋게 비가 내리는 정경을 그림으로써 자신의 그러한 맘을 드러내고 있다. 결구에서 독곡은 이러한 기분을 李行과 함께

102) <有懷寄騎牛子 275>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만나지 못했으니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李行은 틀림없이 술집에서 취해 자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 구는 杜甫의 <飲中八仙歌>에서 ‘李白은 술 한 말 마시면 詩 백편을 썼고, 장안 시장의 술집에서 잠자기 일쑤였네’¹⁰³⁾의 詩句를 상기시키는데 李行을 李白에 비유하여 謫仙이라고 칭하고 있다. 李行을 만나지 못한 아쉬운 감정을 재치 있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②기구와 승구는 李行을 北海先生¹⁰⁴⁾의 豪傑스러운 기상에 비유하여 비범한 풍모를 지녔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구는 李行이 있는 곳을 인간세상과 동떨어진 행복한 공간으로 형상하고 있으며 독곡 자신은 현실적인 이유로 완전한 脫俗世界로 들어갈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국 結句에서 李行이 옥잔에 아침 이슬을 부어 마시고는 仙桃나무 아래 취해 있겠다고 하는데, 霞液, 玉觴, 碧桃라는 신선의 정취가 느껴지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행을 神仙化하고 있다. 이 詩에서도 독곡은 隱居生活을 통해 神仙처럼 한가롭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李行을 憧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詩는 ‘詞語가 豪宕하고 빼어나다’¹⁰⁵⁾는 評을 받았는데 이는 독곡의 浩然하고 風流的인 성품을 바탕으로 隱者의 淸매임 없는 생활을 거침없이 표현한데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독곡은 佛敎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Ⅲ. 學問的 性向과 詩意識’에서 살펴보았듯이 철저하게 儒者的 사고 체계를 소유하면서도 그의 中庸的 자세는 佛敎 수용에 극단적이지 않고 佛敎의 情緒와 敎理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당시 儒敎政治 실현의 기치를 내건 이래 사회 전반에 儒敎的 性向이 팽배했던 조선전기의 시대적 상황 하에서 官僚的 성향이 강했던 독곡에게 佛敎는 脫俗의 場으로서의 호감이 있었던 듯하다. 때로는 개

103) “李白一斗詩百篇 長安市上酒家眠”

104) 北海는 중국 山東省에 있던 地名인데, 後漢末期의 명사인 孔融이 일찍이 北海의 相이 되었으므로 그를 北海先生이라고 칭하였다.

105) 徐居正, 『東人詩話』, “詞語豪宕俊逸”

인의 心性을 수양하는 정신적 휴식처로, 때로는 俗世의 시끄러움을 피할 수 있는 이상적 경지로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스님과의 잦은 交遊를 통해 정신적 지향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으니, 이러한 행적은 청정한 佛教的 世界를 憧憬하는 마음을 기저로 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 詩는 融上人과의 교유를 읊고 있다.

我愛高僧心術正	나는 마음씨 바른 고승을 사랑해,
屢邀陶令同觴詠	자주 도령을 맞아 함께 술 마시며 시 읊는다오.
松經雪霰葉彌青	소나무는 눈보라 거친 뒤 잎 더욱 푸르고,
蓮出淤泥花自淨	연꽃은 진흙에서 나왔으나 꽃 질로 깨끗하네.
境上無心已契融	경지 높아 이미 도를 깨우쳤고,
筆端有力應師永	필력에 힘이 넘치니 마땅히 길이 스승 될 수 있네.
可憐獨谷亦春風	가련한 독곡에도 봄바람 불어오니,
槁木能隨桃李競	고목도 도리 따라 다투어 피려하네. ¹⁰⁶⁾

수련에서 독곡은 스님을 隱者였던 陶淵明에 비유하여 俗世를 벗어난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서로의 신분을 잊은 채 잦은 만남을 통해 詩와 술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스님의 성품을 소나무와 연꽃의 속성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論語』의 句節¹⁰⁷⁾과 周敦頤의 愛蓮說¹⁰⁸⁾에서 상징하듯이, 스님의 성품은 겨울 눈보라가 몰아친 뒤에도 푸른빛을 그대로 간직하는 소나무의 孤高함과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高潔함을 지녔다. 경련에서 스님은 無心の 경지에 도달하여 이미 道를 깨우쳤고, 뛰어난 필력까지 두루 갖추어 자신의 스승이 될

106) <次融上人詩卷諸公韻 181>

107) 『論語』 子罕, “子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

108) 『古文眞寶』 愛蓮說, “...蓮之出於淤泥而不染...”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의 스님들은 사대부들과 學問的으로도 벗이 될 수 있을 만큼 思想의 폭과 文學的 才能을 갖추어 서로 수준 높은 詩文을 주고받았다. 또한, 스님들의 淸淨한 삶은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일치되어 儒·佛의 경계를 넘어서서 친분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련에서는 외롭고 궁벽하게 느껴졌던 독곡(獨谷)에서의 생활에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으로 스님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거처에도 탈속의 분위기를 옮겨오고 있다.

다음은 雲菴스님이 부채를 보내준 것에 감사하며, 詩로써 그 마음을 대신하고 있다.

暑溽煩蒸濁世中	폭폭 찌는 무더위와 혼탁한 세상 속에,
幾思禪榻聽松風	몇 번이나 참선자리 솔바람 소리 그리워했나?
誰令頓入淸涼界	누구 시켜 단번에 청량세계 들어가서,
洗我多生熱惱空	내 전생의 더위 번뇌 씻게 할까? ¹⁰⁹⁾

기구에서 더위와 혼탁한 세상 즉, 시기와 부조리가 만연한 俗世의 체감 더위는 더욱 가중되어 독곡 자신의 처지가 어려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승구에서는 스님과 함께 했던 參禪자리에서 고요 속에 시원하게 불어왔던 솔바람 소리가 절로 그리워진다고 자신의 상황과 대비시켜서 그려놓았다. 전·결구에서는 더위와 혼탁한 세상에 지친 자신을 청량세계로 이끌어 더위 번뇌 없애줄 이가 누군가고 반문하고 있다. 이는 부채의 효용을 말한 것인데, 부채를 통해 더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마치 禪定을 통해 번뇌를 끊고 깨닫게 되는 과정인양 재치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결국 스님이 보내준 부채를 통해 청량한 세계로 들게 되었노라고 고마워하면서도 실제로는 스님의 정신세계에 交感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

109) <走筆謝雲菴主法惠扇 382>

음을 읽고 있는 以心傳心の 사이인 것이다.

다음은 수행에 몰두하는 嶺庵스님의 모습을 靜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白雲滿岩嶺	흰 구름 바위산에 가득하여,
庵在有無中	암자는 있는 듯 없는 듯.
庵中閑道人	암자 속의 한가로운 도인은,
宴坐觀眞空	참선 들어 眞空을 바라보네.
團團一間屋	둥근 모양의 한 칸의 집이,
還與太虛同	도리어 우주처럼 너르다오.
道人雖不語	도인은 비록 말을 하지 않지만,
出語驚群蒙	말을 하면 몽매한 사람들 놀랄 것이네.
時於淨極處	때로는 지극히 청정한 곳에서,
喚起主人公	본래의 진면목을 일으켜 보네.
主人公何在	본래의 진면목은 어느 곳에 있는가?
到處尋難窮	도처에 있으나 찾기 어려워라.
夜夜鷄鳴丑	밤마다 닭은 축시에 울고,
朝朝日出東	아침마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오.
換東作西者	동쪽을 바꾸어 서쪽을 만든 자는,
哀哉獨谷翁	가여운 독곡의 늙은이라네. ¹¹⁰⁾

1-4구는 암자가 있는 곳의 경치 묘사와 암자 안의 참선하고 계신 스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흰 구름이 바위산에 가득하여 스님이 거처하는 작은 암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깊숙한 산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게 하며, 그 정경은 바로 스님의 '嶺庵'이라는 法名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5-8구는 암자의 공간은 좁지만 참선 수양을 통해 스님의 정신세계는 우주만큼 넓다고 칭송하고 있다. 비록 스님이 참선수행에 몰입하여 말을 앓고 있지만

110) <次浩亭韻題嶺庵詩卷 14>

그 깨달음을 말로 하면 몽매한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막힘없는 說法의 힘을 지니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9-12구에서 스님은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해 때로 지극히 淸淨한 곳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찾아보는데, 그것은 俗世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문답형식을 통해 강조하면서 스님의 경지를 높이고 있다. 13-16구에서는 밤마다 축시에 닭이 울고, 아침마다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은 변함없는 일상의 진리인데 자신은 그 진리의 자연스런 운행에서 벗어나 있으니 스님의 삶과는 다른 삶을 시사하고 있다. 이 詩에서 영암스님의 수양깊이를 알 수 있으니 그 경지는 몽매한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초탈한 경지이다. 詩 속에 독곡은 스님의 禪的 깨달음을 憧憬하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현실적인 고뇌로 인해 급급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그려냄으로써 대비적 상황을 극대화시켜 놓고 있다.

다음 詩는 契融上人의 詩韻에 次韻하여 지은 두 수중 한 수이다.

無事曾將智刃切	자연스레 일찍부터 지혜의 날로 번뇌 끊고,
禪心久與陰魔絕	참선 마음 오래되어 저승 마귀 물리쳤네.
遊方問答冠叢林	수행 위해 다니면서 문답함은 총림에 으뜸인데,
面壁親參甘苦節	면벽하고 참선하며 고행을 감수하네.
軟話留人鄙吝消	고운 말로 머물라니 인색한 맘 사라지고,
新詩起我胸襟豁	새 시 지어 일깨워서 내 흉금을 넓혀주네.
高僧剝啄既無求	고승의 문 두드림 애당초 원하는 것 없으니,
老子踈慵能不悅	게으른 늙은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¹¹¹⁾

수련은 끊임없이 參禪 수행을 하는 진정한 禪師의 모습 - 냉철한 지혜의 힘으로 온갖 번뇌를 끊어 버리고, 오랫동안 진리를 직관하는 마음을 수행하여 저승 마귀 물리쳤다고 읊고 있다. 함련에서는 수행을 위해 사방을 떠돌

111) <次契融上人詩韻 二首 180>

아다니면서 佛法에 대한 문답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음에도 이에 머물지 않고 몸소 벽을 향해 참선하며 고행을 감수하는 스님의 자세는 수도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경련과 미련에서는 契融上人の 인간적인 성품과 태도로 인해 닫혔던 독곡의 마음이 열렸음을 읊고 있다. 스님은 자비로움이 느껴지는 고운 말로 독곡을 머무르라고 하니 인색했던 마음은 이내 사라지고, 꾸밈없는 詩를 지어 건네는 스님의 태도에는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 오히려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감정을 스스럼없이 털어놓게 해주고 있다. ‘高僧’의 표현을 써 높은 경지에 다다른 스님의 學德에 존경을 표하였고, ‘無求’는 스님의 無所有한 삶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자신은 산만하고 게으른 세속의 늪은이로 지칭하여 스님과 자신과의 대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자신과의 교유를 흔쾌히 이끌어가는 스님의 태도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淸淨한 마음과 따사로운 정감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님과 교유는 俗世의 사사로운 사귄다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서 독곡은 이러한 사귄을 통해 佛教라는 세계와의 교류를 거부감 없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은 金剛山에서 수행하는 貧道人에 대한 관심을 짙게 표현한 詩이다.

境內山川皆勝絕	우리나라 산천 경치 모두 뛰어나지만,
金剛之山爲第一	금강산이 그 중에서 제일이래요.
諸庵坐禪貧道人	여러 암자에서 좌선하는 가난한 스님들은,
衣食不 難度日	의식을 잊지 못해 하루를 보내기도 어렵다네.
伏望尊卑諸檀越	엎드려 바라노니 높고 낮은 보시자들,
一片良緣發眞實	한 조각 좋은 인연으로 진실한 맘 발하시오.
不知眞實是何事	진실한 마음이란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摩訶般若波羅密	마하 반야 바라밀이래요. ¹¹²⁾

112) <題金剛山諸庵安禪道人供養普勸軸 29>

수련은 우리나라 산천 경치는 어디든지 수려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金剛山이 가장 수려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함련에서는 그렇게 수려한 金剛山이지만 그 산에 흠어져 있는 암자들이 빈곤한 실상을 겪게 되어 修行者들이 의식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는 斥佛로 인해 대부분의 寺院들이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진정한 修行者마저 貧困에 몰려 기본적인 의식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를 애석하게 여긴 독곡은 경련에서 信者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발할 것을 간절하게 청하지만 미련에서 사실은 자신도 진실한 마음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큰 지혜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다’는 뜻의 불교용어 ‘마하 반야 바라밀’을 사용하여 보시하는 맘이 바로 진실한 맘이라고 佛敎에서 지향하는 정신세계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詩는 독곡이 당시 貧道에 대해 깊은 애정을 보인 詩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佛敎徒에게 불리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독곡의 佛敎에 대한 관심을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태종 때는 斥佛政策을 더욱 강행하여, 사찰을 혁파하고 寺田과 寺奴를 몰수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많아 민심이 흉흉하였다. 이에 독곡은 민심수습을 위해 폐지된 사찰을 대신하여 大伽藍을 택하여 승도들이 거주할 곳을 마련하고자 청하니, 곧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일부 識者들은 독곡은 본래 부처에게 아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청을 올렸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¹¹³⁾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독곡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脫俗的 공간을 통해 정신적 평안함을 찾고자 함이었다.

113) 『태종실록』 14권, <7년 12월 2일조>

①

暮鼓朝鍾震法堂	저녁 북소리 아침 종소리 법당에 퍼지니,
應將梵采大張皇	응당 불교 채색은 아름답고 장황했었지.
誰知白首紅塵裏	누가 알까 백발 되어도 흥진 속에서,
遙向雲山憶上房	멀리 운산 향하여 승방을 그리워함을.

②

金仙煥赫耀明堂	부처님 빛나고 빛나 법당이 환하니,
吉夢追隨感漢皇	길몽 따라 한나라 황제 감동 시켰네.
眞贗誰分千載下	진실과 거짓 누가 천년 뒤에 분별 하리오?
蕭然我愛宿僧房	초연히 나는 승방에서 잠들기 좋아하네. ¹¹⁴⁾

두 수는 청평사로 돌아가는 역암을 전송한 詩로, 독곡은 현실세계와 대조되는 憧憬의 공간으로 僧房을 제시하고 있다. ①기구, 승구에서는 예전에 절에 머무르면서 느꼈던 風景과 禪味를 떠올리고 있다. 저녁에는 북을 치고 아침에는 종을 울려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경건한 山寺의 분위기는 禪的 정취를 자아내고 있으며, 法堂 안에는 佛敎의식에 따라 그린 채색이 아름답고 장황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백발이 되어서도 여전히 관직에 매여 자유롭게 다닐 수 없지만, 마음은 멀리 僧房을 향해 그리워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②金仙은 부처님을 아름답게 지칭한 말로, 법당 안에 있는 금빛 불상이 외형적으로 환한 것도 있지만 내면적 깨달음, 즉 모든 번뇌에서 해탈함으로써 더욱 빛이 나서 온 법당이 빛이 난다는 것이다. 그러한 法力으로 漢나라 때 수입된 佛敎는 중국 황제를 감동시켰다고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 전구와 결구는 세상일에 진실과 거짓은 시간의 지나면 밝혀지리니 굳이 나

114) <復用前韻送樾菴歸住清平社 二首 367>

서서 가릴 필요 없으며, 초연한 마음으로 世俗과 단절된 僧房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僧房은 독곡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공간, 즉 脫俗의 세계로 표현되고 있다.

독곡은 충실한 官僚생활을 하였지만 시대적 상황 속에서 爲政者로서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오랜 관직생활에 대한 염증으로 잠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도피처를 希求하는 데에서 脫俗세계에의 憧憬은 비롯되었다. 俗世를 벗어난 脫俗의인 공간에서 隱者와 스님들과의 交遊를 통해 정신적인 자유와 위안을 누리하고자 하였다. 특히 독곡에게 佛敎는 개인의 심성을 수양하는 정신적 휴식처로, 俗世의 시끄러움을 피할 수 있는 이상적 경지로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 佛敎의 정서와 교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俗世에 물들지 않은 스님과의 잦은 交遊를 통해 정신적 지향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고, 현실적으로는 당시 사회의 佛敎에 대한 핍박에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현실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 버린 것이 아니어서 脫俗의 공간으로서 청정한 佛敎的 世界를 憧憬하는 마음을 기저로 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사유 방식은 독곡의 詩想을 폭넓게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V. 文學史的 意義

조선은 여말에 유입된 性理學을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여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 文學에서도 文以載道 文學觀이 널리 보급되어 詞章보다 經學을 중시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조선 초 대표적인 官僚文人인 鄭道傳은 文以載道 文學觀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權近에 이르러서는 經學을 중시하면서도 국가의 안위와 새 왕조에 대한 찬미로 인해 詞章의 현실적 중요성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兩者가 공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곡은 적지 않은 정치적 갈등을 겪으면서 조선 왕조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의 삶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현실적인 정치를 실천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독곡을 포함한 이 시기에 활동한 卞季良, 趙云佐, 李詹, 鄭以棼 등은 官僚文人으로서 당시의 보편적인 文以載道 文學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한 자로 文學 역시 현실적인 效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독곡의 官僚意識이 드러나 있는 詩作品들에는 주로 官吏들을 향한 아낌없는 忠言, 職分意識, 太平聖代에 대한 찬양과 자부심, 聖恩 등을 표현하여 官僚文人의 전형적인 面貌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삶의 대부분을 할애한 官職 生活과 당시 朱子學的 분위기의 팽배로 儒者로서의 經世濟民의 의지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독곡에 대한 諸家の 評을 살펴보면 그의 관료적 문인으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文學的 才能을 확인할 수 있다.

徐居正은 <獨谷集序>에서 ‘기운이 雄壯豪放¹¹⁵⁾하다(氣雄以放)’고 評했는데

115) 劉國盈, 廖仲安 主編, 『中國古典文學辭典』, 北京出版社, 1994, p.1006 豪放은 기세가 늠름하고 감정이 솟구치는 풍격이 특색이다. 일반적으로 雄壯하고 奇妙하며 넓고 큰 모습과 격양되고 양양된 성서를 표현하다. 山河의 장려함을 찬양하고 經世濟民의 포부를 묘사하고 애국주의의 호탕한 정을 표현하며, 역

이는 儒者로서 經世濟民하려는 강한 포부와 스님들과의 얽매임 없는 交遊 그리고 隱者의 자유분방한 삶을 거침없이 묘사한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독곡이 儒者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佛·道를 아우르는 사유체계를 가짐으로 형성된 것 같다.

‘시율이 엄정하고 필법이 정묘하다.’¹¹⁶⁾는 독곡의 官僚的 面貌의 詩世界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官僚文人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의례적 요소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로 인해 世宗이 평생 儒者적 삶에 기반을 두고 창작되어진 독곡의 詩를 함축적으로 평한 것으로 그의 엄정하고 세밀한 문장력을 칭찬하고 있다.

權鼈의 ‘시단에서 일찍이 이름을 떨쳤다.’¹¹⁷⁾와 權文海의 ‘시사가 俊逸하다.’¹¹⁸⁾評과 앞에서 언급한 ‘渾厚’의 評은 독곡의 日常事에서 느끼는 情趣를 꾸밈없이 시로 표현하고 平易하고 淡泊한 詩語로 이야기하듯 읊고 있으며 절제된 감정표현을 통해 도리어 절실한 감동을 자아내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러한 풍격은 실제 그의 온화한 성품까지도 집약하여 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徐居正이 ‘詞는 풍부하면서도 아름다워 꾸미는데 급급하지 않았는데도 정체가 찬란하다.’¹¹⁹⁾고 評한 것 자연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물들의 섬세한 관찰을 통해 物性의 특이함을 재치 있게 표현하였고, 자연물의 외적 아름다움과 그 속에 감춰진 내적 교훈을 발견하여 기발한 시상으로 은근하게 전개하는 것을 지적한 것 같다. 독곡은 지친 수식이나 기교를 부리지 않고도 정체가 찬란한 詩를 지은 점에서 문예적 재능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독곡은 여말선초의 儒敎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뛰어난 文翰과 능숙한

사상의 흥망의 경험과 교훈 등을 개괄한다. 예술 표현상에 있어서 豪放한 작품은 항상 전통적인 詩詞의 音韻과 格率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유창하고 경건한 언어를 즐겨 쓰며, 품고 있는 생각을 직접 묘사하며 필력이 중횡 무진하여 자유자재로 휘둘러 구사하다.

116) 『世宗實錄』 19卷, <5년 1월 22일조>, “世宗曰 詩律之嚴 筆法之妙”

117) 權鼈, 『海東雜錄』, “獨谷卒 李稷以詩哭之曰 筆陣誰爭敵 詩壇早擅名”

118) 權文海, 『草澗集』 卷4, 『大東韻玉』, “詩詞俊逸”

119) 獨谷先生集序, “氣雄以放 詞瞻而麗 不屑屑於雕篆 精彩爛然可喜”

공무수행을 바탕으로 조선 초기 이념을 수립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그의 시에는 실천적인 관료의 면모를 형상화한 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개인적인 감정과 흥취를 표출하여 다양하고 개성 있는 시세계를 지닌 정감 있는 시도 많이 지었음 뿐만 아니라, 그 시적 풍격이 渾厚, 雄壯豪放, 豪宕, 俊逸하다는 諸家들의 評은 독곡의 문학적 재능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독곡은 위로는 임금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敎化하는 官僚文人으로서, 그의 詩에서는 당대의 보편적인 官僚文人의 전형적인 문학의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직은 性理學的 문학의식이 본격화되기 이전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詩世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곡의 詩는 현실 지향적, 공리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통해 개성적이고 다양한 詩世界를 구축한 것으로 보아 純粹 詩人으로서의 뛰어난 위상을 지닌 麗末鮮初 文人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VI. 結 論

이상은 『獨谷集』에 실린 작품을 중심으로 獨谷 成石璘의 詩세계 전반을 고찰해 보았다. 이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獨谷 成石璘(1338-1423)은 高麗 忠肅王 復位 7年에서 朝鮮朝 世宗 5年까지 살았던 麗末鮮初의 政治家이자 文人이다. 독곡이 활동했던 14세기 중반에서 15세기 전반은 대외적으로는 元·明의 교체를 겪고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조선 왕조의 창건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혁이 있었던 시기였다. 고려 말 유입된 朱子學이 조선 건국 후 정치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정치·경제·사회전반을 비롯한 文學에도 영향을 끼쳐 道를 중시하는 文以載道 文學觀을 펴게 되면서 詞章에서 經學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사대외교의 현실적 중요성과 새 왕조에 대한 찬미 등으로 인해 詞章을 소홀히 할 수 없었으며 그로인해 兩者가 공존하게 된다. 또한 사회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官僚層의 보수적 성향으로 詞章이 융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 독곡은 적지 않은 정치적 갈등을 겪으면서 조선조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의 삶은 조선조에 나아가서도 나라와 백성을 위한 현실적인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즉 고려조에서는 뛰어난 文翰과 능숙한 공무수행으로 왕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조선조에서는 오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통치이념수립에 큰 공을 세웠으며 민생의 안정과 教化를 위해 힘썼다.

독곡의 學問的 性向은 당시 朱子學의 큰 줄기를 좇으면서 부친 汝完과 座主 李仁復, 그리고 同시대 名儒들과 긴밀한 交遊關係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연한 자세로 다양한 學問을 받아들였는데, 특히 儒者의 中庸的 입장에서 儒·佛이 추구하는 근본적 이치는 같다고 표명하면서 佛敎의 교리와 정서에 상당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을 뿐더

러 道家도 함께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폭넓은 學問과 다양한 사상의 개방적 수용은 독곡의 詩意識에 영향을 주어 시상을 폭넓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형적인 官僚文人으로서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敎化의 목적으로 詩의 효용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면서도 그 이외 서정의 자연스러운 시심이나 흥취를 읊은 것으로 볼 때 다양한 詩意識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詩世界는 형식에 있어서 七言絶句와 五言律詩가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작시를 즐겨 지어 잇따른 사상과 구체적인 정서를 표출하였고, 送別과 次韻 형식의 交遊詩가 많았다. 내용상에 있어서는 그의 學問的性向과 詩意識과 연결하여 1) 官僚的 面貌, 2) 日常的 情趣, 3) 自然交感의 興趣, 4) 脫俗世界에의 憧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官僚的 面貌에서는 대부분의 생애를 관직에 몸담으면서 修己治人을 실천한 전형적인 官僚文人으로서 사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의례적 요소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음을 수 있었다. 2) 日常的 情趣에서는 일상사에서 느끼는 사적 감정에 대한 꾸밈없는 표현을 통해 독곡의 '渾厚한 詩風'과 훈훈한 인간미를 소유한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었다. 3) 自然交感의 興趣에서는 섬세한 관찰과 재치 있는 표현을 통해 그 속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자연과의 物我一體를 맞보기도 하였다. 독곡의 자연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발한 사상전개와 적절한 표현으로 다각도로 형상화면서 자신이 의도하고자하는 바를 은근히 담아내는 뛰어난 詩的 才能을 알 수 있었다. 4) 脫俗世界에의 憧憬에서는 관직에 있으면서 겪어야 했던 염증을 佛·道의 脫俗的 공간을 통해 해소하여 그의 淸淨한 脫俗世界 憧憬, 豪宕한 시풍, 醉樂風流的性向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일시적인 希求였지만 그의 자유로운 思惟는 폭넓은 시상을 만들어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부각되지 못한 관료적 면모 이면에 숨겨진 독곡의 개인적 정서와 흥취가 배여 있는 다양하고 독특한 詩世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諸家들이 평한 渾厚, 雄壯豪放, 豪宕, 俊逸의 시적 풍격을 재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곡이 麗末鮮初 전형적인 官僚文人 이면서 뛰어난 詩才와 풍부한 감성을 지닌 순수 시인으로서 뛰어난 위상을 지녔음을 고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조명한 詩世界는 독곡의 문학의식 중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麗末鮮初의 官僚文人과 交遊文人의 작품 연구를 통해 독곡의 문학적 면모를 더 자세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基本資料

- 成石璘, 『獨谷先生集』, 『韓國文集叢刊』 6, 民族文化推進會, 1990
- _____, 國譯『獨谷先生集』, 獨谷集編纂委員會, 1988
- 太祖實錄, 『朝鮮王朝實錄』 1·2집, 國史編纂委員會, 탐구당, 1973
- 定宗實錄
- 太宗實錄
- 世宗實錄
- 成倪, 『虛白堂文集』, 『韓國文集叢刊』 14, 民族文化推進會, 1990
- 徐居正, 『筆苑雜記』, 『韓國文集叢刊』 1, 民族文化推進會, 1990
- _____, 『東文選』, 民族文化推進會, 1977
- 徐居正 編·朴性奎 譯, 『東人詩話』, 집문당, 1998
- 金宗瑞 外, 『高麗史節要』
- 鄭 趾 外, 『高麗史』
- 『中庸』, 學民文化史, 1990
- 『詩經』, 學民文化史, 1990
- 『大學』, 學民文化史, 1990
- 『論語』, 學民文化史, 1990
- 『古文眞寶大全』, 保景文化史, 1995
- 鄭道傳, 『三峰集』, 『韓國文集叢刊』 5, 民族文化推進會, 1991
- 李穀, 『稼亭集』, 『韓國文集叢刊』 3, 民族文化推進會, 1991
- 李穡, 『牧隱文藁』, 『韓國文集叢刊』 3, 民族文化推進會, 1991
- 李崇仁, 『陶隱集』, 『韓國文集叢刊』 6, 民族文化推進會, 1990

權近, 『陽村集』, 『韓國文集叢刊』 7, 民族文化推進會, 1990
朴崑, 『釣隱先生文集』, 韓國歷代文集叢書
洪萬宗, 『詩話叢林』, 서울亞細亞文化史, 1973
許捲洙 外, 『(譯註)詩話叢林』上下, 까지, 1988
金宗直 編·李昌熙 譯, 『靑丘風雅』, 다운샘, 2002
吳世昌 編, 『大東詩選』, 學民文化史, 1992

2. 單行本

김갑기, 『한국한시문학사론』, 이화문화출판사, 1998
김동욱, 『고려사대부 작가론』, 박이정, 2004
김성룡, 『여말선초의 문학사상』, 한길사, 1995
劉國盈, 廖仲安 主編, 『中國古典文學辭典』, 北京出版社, 1994
민병수, 『한문학시사』, 태학사, 1996
박성규, 『고려후기 사대부문학 연구』, 고대출판사, 2003
申千湜,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학파』, 경인문화사, 2004
李丙燾, 『(新修)韓國史大觀』, 普文閣, 1972
李丙疇 外, 『韓國漢文學史』, 半島出版社, 1991
이병혁, 『고려말 성리학 수용기의 한시연구』, 태학사, 1987
_____, 『여말선초의 한문학의 재조명』, 태학사, 2003
_____, 『한국한문학의 탐구』, 국학자료원, 2003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정 민, 『한시미학산책』, 솔출판사, 1996
丁大丸, 『조선조 성리학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2
정요일, 『한문학비평론』, 집문당, 1990
조동일, 『조선전기 사회사상 연구』, 지식산업사, 1983

- _____,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2002
- _____,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1994
- 조종업, 『한국시화연구』, 어문연구총서 제3집, 태학사, 1991
- 車柱環, 『中國詩論』,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韓國漢詩學會, 『韓國漢詩作家研究』2, 태학사, 1996
- 한영우, 『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1983

3. 論文

- 金性彦, 한국 관각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0
- 金承龍, 座主·門生을 통한 高麗後期 漢詩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1
- 김성룡, 여말선초의 문학비평, 『한국한시연구』제7집, 한국한시학회, 2006
- 李東泉, 獨谷 送別詩 研究, 명지대 석사 학위논문, 1992
- 李東熙, 麗末鮮初 朱子學의 도입과 儒·佛 교섭, 『東洋哲學研究』 제 17집, 東洋哲學研究會, 1997
- 이민홍, 조선전기 자연미의 추구와 한시,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학회, 1992
- _____, 조선전기 한문학의 맥락, 『인문과학』,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전수연, 여말 사대부 한문학과 불교, 『大東漢文學』, 제10집, 1998
- 정요일, 문이재도론의 이해,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학회, 1982
- 鄭在薰, 麗末鮮初의 性理學과 經世論, 『韓國思想과 文化』제10집, 修德文化史, 2000
- 정치현, 여말선초 과거문신세력의 정치동향, 『한국학보』, 일지사, 1991

丁海出, 獨谷 成石璘 漢詩의 研究 , 고려대 석사 학위논문, 1995

최영진, 여말선초 사대부의 대응양상과 사상적 전환 , 『국학연구』제5집,
한국국학진흥원, 2004

崔允禎, 成石璘의 詩文學 研究 , 이화여대 석사 학위논문,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poetry of Tok-gok Seong

Seok-Rin(成石璘)

Oh, Heong Jung
Dept, of chinese Classics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order to identify Tok-gok Seong Seok-Rin(1338-1423)'s officedom appearance and rarely known characteristics of his various poetry, this study researched into "his life and historical background", "academic propensity and poetry consciousness", "poetry world", and "his consciousness in literary history" in order.

In his life and historical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his overall life as officedom, historical condition, literary stream. He meet with conflict as the last Geryeo gentry without exceptions. But because of he had a hope that realize the pragmatic politics for nation and people, he continued officedom after the end of Geryeo, and set an example to officedom and rendered outstanding service as establishing government idea of Early Chosun. Because of the historical condition in his days was social reformation using neo-Confucism as new idea, this study told that Sajang attached importance to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but

couldn't neglect realistic importance of Sajang.

In "academic propensity and poetry consciousness", his academic propensity was recipient about Buddhism and Taoism softly when organizing neo-Confucism. His wide scholarship and open admission of various thoughts influenced and made extensive his poetry world as attaching importance to poetry effectivity and being concerned about expression of personal feeling at the same time.

In "the poetry world", this study overviewed his overall poetry structure and contents, and examined some poetry that revealed his poetry world, assorted as follows. First, in "bureaucratic feature" this study illustrated his doing "the practice of perfect virtue" engaging officedom in his most life. Mostly, this study told a formal feature about bureaucratic literalist expressing his liberal advice to officedoms, praise and pride about peaceful reign, royal favor to the king. Second, in "the daily mood" this study illustrated his mild poetical style and warm humanitly through artless expression of emotion about his daily life, friends, family. Third, in "the charm of nature sympathy" this study told that his poetry shaped up a difference of the matter wityly through delicate observation and achieved esthetic harmony attaching importance to the immanent instruction as well as the outside beauty. Fourth, in "yearning for unworldliness" this study told that he cleared up his officedom conflicts through the unworldly space of Buddhism and Taoism, and yearned the pure world.

In atmosphere attaching importance to Confucianism, He is a person that rendered outstanding service as establishing government idea of Early Chosun, on the base of eminent literal ability and skillful official

execu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a meaning that illuminate his feature as the pure poet having an extensive feelings, as well as formal bureaucratic feature.